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IV –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
니라!”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7894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	4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믿으라.....	7
8082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7
7648 하나님을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로.....	8
8035 하나님에 대한 잘못 된 관점. 잘못 된 가르침.....	9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12
8975 창조하는 역사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역사였다.....	12
7556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의 목적.....	14
예수의 사명.....	16
7780 빛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	16
5290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계시해주는 이유.....	17
7731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19
예수는 하나님이다.....	21
7816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	21
8422 예수는 하나님이다.....	22
7117 삼위일체의 문제.....	24
예수의 사랑의 삶.....	26
7872 인간 예수의 투쟁.....	26
7962 측량할 수 없는 예수의 사랑.....	28
원죄의 속죄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속.....	30
7748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원죄의 사함.....	30
8201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32
7235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	33
5106 자신의 구원.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4
2101 구속역사의 은혜.....	35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일.....	38
5844 인정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38
6449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을 가지고 인정하는 일.....	39
6579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없다.....	40
용서를 구하는 일은 십자가로 가는 일.....	43
7442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	43

7717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야만 한다.....	44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	46
6827 원수에 대항하는 더 강력한 싸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일.....	46
6169 예수 이름이 마귀를 물리친다.....	47
힘과 의지의 강화를 요청하는 일.....	49
8589 힘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 교만. 겸손.....	49
7762 예수를 통한 의지의 강화와 능력의 제공.....	50
이 땅의 과제는 예수를 따르는 길을 가는 일.....	52
8019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	52
7874 예수를 올바르게 따르는 일.....	53
1834 예수님을 따르라.....	55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과 그에게 헌신하는 일을 통한 그의 임재와 도움.....	57
6374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	57
7356 계속하여 예수를 부르는 일이 그의 임재를 보장한다.....	58
6508 예수를 향한 헌신. 구세주와 의사. 구원자.....	59
7321 하나님의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	60
7497 이 땅의 삶의 과정을 위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61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	64
4831 세상 앞에서 고백하는 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일.....	64
7216 세상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65
저세상에서도 또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67
5931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나라로 가는 문이다.....	67
7290 저세상과의 간격을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	68
7839 저세상에 있는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일.....	69
5952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한다.....	70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

B.D. No. 7894

1961년 5월 18일

내가 내 말을 이 땅에 전하면, 내 아주 큰 사랑이 공개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왜냐면 **내**가 너희가 깊은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너희를 이 위험으로부터 구하기

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직접 또는 내 전달자를 통해 말할 때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능력을 너희에게 제공하기 원한다.

나는 너희가 연약함을 안다. 나는 너희가 능력을 제공받지 않고서는 너희의 이 땅의 길을 헛되이 가게 된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내 지속적인 염려는 너희에게 능력을 주는 일이다. 이 일은 위로부터 너희에게 들려주는 내 말을 통해 일어난다. 왜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위로부터 오는 내 음성에 자신을 열면, 나와 연결이 이뤄지고 내 능력의 흐름이 너희 안으로 흘러 갈 수 있고 너희에게 높은 곳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내 말을 내 능력으로 축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말은 너희의 혼에 유익이 되게 역사해야만 한다. 내 말은 혼의 성장을 도와야만 한다. 내 말은 혼에게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게 돕는 혼을 위한 영의 양식이 돼야만 한다.

원래 초기에 나는 너희 모두에게 말할 수 있었다. 너희 모두가 너희 안에서 내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너희는 나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내 사랑이 쉬지 않고 너희 안으로 비출 수 있었다. 우리들은 활발하게 나로부터 나와 너희 안에서 들리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교제를 했고 너희는 응답을 할 수 있었고 이로써 측량할 수 없게 행복했다. 너희가 자유의지로 나를 떠났을 때 너희는 너희 안에서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 그렇지라도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와 연결을 이루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너희의 자유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자유의지를 드러, 내가 그에게 말하게 허용하는 사람은 내 큰 은혜를 활용하는 사람은 비록 그가 최종적으로 나에게 귀환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내 말을 듣기에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나 그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의지에 따라 그에게 나 자신을 계시한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가 한때 죄를 지은 자유의지로 그를 떠났던, 너희 사람들에게 낮아져 다가가는 이런 은혜의 선물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다. 내 사랑은 아주 커서 이 사랑은 너희에게 향하고 영원에 모든 영원까지 향할 것이다. 이 사랑이 바로 항상 너희에게 말한다.

왜냐면 사랑이 너희가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이 땅의 마지막 과정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 살지라도 이로써 너희가 다시 영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의 마지막 형체를 입었을지라도 아직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과제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 아무 일도 행하지 않거나 아주 적게 행한다. 너희는 너희에게 능력을 줄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 안에서 너희를 가르치고 자극하기 위해 너희에게 다가 간다.

나는 사랑으로 너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전한다. 나는 너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준다. 왜냐면 나 자신이 너희의 귀환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의 이 땅의 과정이 성공하기를 너희가 세상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말한다. (1961년 5월 18일) 내가 너희에게 이제 말하는 것은 순수한 진리이다. 왜냐면 내 말은 진리의 원천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항상 또 다시 내 순수한 말을 변개한다. 그러면 너희에게 제공이 된 말은 그의 능력을 잃는다.

그러나 너희는 능력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너희는 능력이 없이는 높은 곳을 향한 길을 갈 수 없다. 너희가 이 땅의 과정을 가는 동안 너희는 연약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사랑은 항상, 만약에 너희가 받아드리면, 너희에게 도움을 줄 자세가 되어 있다. 내가 직접해주는 말은 가장 확실한 도움이다.

왜냐면 내 말을 듣기 위해 나와 연결이 필요 하고 나와 모든 연결은 이제 내 말을 통해 일어나는 능력이 흘러가는 일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직접 너희의 아버지로부터 능력을 제공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너희는 모든 직접 해주는 말 가운데 너희에게 향하는 내 끝없는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 내 사랑은 사람들이 나에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내 일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의 모든 어려움을 안다. 그는 자녀들을 도움이 없이 놔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안다. 나는 너희의 연약함과 허물을 안다. 나는 너희의 의지를 안다. 이 의지가 나를 향해 있으면, 내 사랑이 너희를 절대로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너희를 얻기 위해 확실하게 대적자와 싸운다. 왜냐면 너희는 나에게 속했고 영원히 나에게 속해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너희의 의지가 나를 추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에게 향하는 길을 쉽게 찾게 하기 위해 너희의 의지가 자극을 받게 하기 위해 너희가 눈을 너희의 진정한 고향이 있는 위로 향하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서 나는 나와 내 임재를 너희 사람들에게 증명한다.

왜냐면 너희가 타향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귀환을 사모하는 너희의 아버지인 나에게 귀환해야 한다. 이로써 너희가 이제 나와 연결이 되어 영원히 축복받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B.D. No. 8082

1962년 1월 19일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성되었다. 그 자신이 능력의 근원이다. 그의 근본적인 요소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사랑이다. 그러나 그는 지혜로운 판단에 따라 역사하고 창조하는 존재이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실행해 옮기는 쉬지 않고 새로운 창조물을 생성되게 하는 무한의 세계로 자신을 사랑의 힘을 발산하는 그러나 항상 그의 목적을 성취시키고 임의대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과 지혜와 권세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가 정해지게 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사랑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동안에는 사랑의 속성에 헤아려 볼 수 없는 동안에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인정하는 최고이고 최고로 온전한 존재의 특성으로써 사랑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인간으로써 이 땅에 과정을 가는 동안에는 이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이해할 수 없게 남을 것이다. 너희 모두는 이런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 너희는 능력이 발산되어 나온 것이다.

너희의 원래 성품 자체도 사랑이다. 그러나 존재의 속성을 증명해 주는 생각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것은 그리고 창조될 것은 어떤 것도 계획이 없이 생성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지혜가 충만하게 생각이 되었고 모든 것이 너희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최고로 온전한 존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 존재는 번성한다. 자신으로부터 같은 존재를 생성시킨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흘러나와서 그들에게 형체를 부여한다. 창조가 된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그의 원래의 성품이 사랑이고 사랑으로 남는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역사해야 할 능력이고 능력으로 남게 된다. 이 능력이 효과를 나타내는데 방해를 받으면, 이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

사랑의 원칙이 반대로 바뀌게 된 것이다. 자기 자신이 사랑과 지혜와 능력인 즉 하나님이신 존재에게 저항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저항은 실제 생명으로 창조된 존재 편에서 일어날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형상으로써 자유의지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는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을 벗어 나게 된다. 자기 자신이 반대로 된다. 그는 실제 존재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힘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굳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 발산되어 나온 자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들 자신의 원래의 성분이 사랑이다. 그러나 사람은 대부분 자신을 존재로 발산되어 나오게 한 분에게 저항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그는 사랑 자체인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면 사랑은 동시에 빛이기 때문이다. 이 빛은 사람들의 사랑이 연약한 동안에는 아주 적게 사람들에게 비추어 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을 수 없다. 단지 그에게 전해지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전해진 것이 진리에 합당하면, 그들에게 빛을 준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성품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는 넘치게 온전한 존재에게 이제 그가 영원한 사랑으로 깨닫기를 시작한 존재에게 향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속성을 절대로 헤아려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영원한 능력의 중심이고 모든 창조된 존재들은 발산되어 나온 능력의 불씨로써 그의 아주 작은 속성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원래의 불을 절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사람들의 의지가 선하고 그들이 생성되어 나온 존재의 사랑의 빛에 자신의 심장을 다시 열면,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지혜와 권세를 깨달을 수 있다. 왜냐면 이런 최고로 온전한 존재가 자신을 자신의 비전을 그들에게 계시하기 때문이다.

그가 창조한 존재들에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것이 자기 자신에 관해 깨달음을 주는 것이 자기 자신이 사랑인 존재의 최고로 큰 사랑의 증거이다. 이를 통해 다시 사랑이 원래의 요소에 합당하게 역사할 수 있게 되게 하기 위해 자신의 피조물들이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정해진 바대로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영원한 질서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해 그는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로.

B.D. No. 7648

1960년 7월 15일

사람들이 나를 믿을 지라도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 나는 멀리 있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와 관계가 없다. 그들은 나를 멀리에서 찾고 내게서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만 그들의 아버지는 보지 못한다.

그들은 아직 한자녀로서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세우지 못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듯이 나에게 감히 말하지 못하고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않는다 왜냐면 친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여지 없이 심판하는 판사, 곧 벌을 주는 하나님만을 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한 내 무한한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친숙하게 다가와 둘만의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다. 그들은 내 사랑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함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나와 가까와져 나에 의해 자녀로 받아들여야 하는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그들은 나로부터 여전히 멀리 있고 이로써 내 능력이 관통해 흐를 수 없다. 그들에게 이런 지식을 전하는 일이 어렵다. 왜냐면 그들에게 나는 가까이 다가 갈수 없는 존재이고 그런 존재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이 존재는 사람과 너무 멀리 떨어져 위에 있고 그들과 적게 혹은 거의 관계성이 없다. 그들은 창조주가 그의 피조물과 연합하리라고 믿지 않는다. 그들이 스스로 고립을 깨고

내게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 한 고립 된 것처럼 느끼고 실제 고립 된다. 그렇지만 나는 내 자녀들의 아버지이길 원한다. 사람들과 가까이하길 원한다. 아주 가까이 그들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관계성을 갖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이다.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오려고 해야 한다. 그가 바로 내게 가까이 오려는 의지로 우리 간에 있는 거리를 극복해야 한다. 그에게 계속 이 사랑에 관해 전할 때 내가 단지 사랑이며 이 큰 사랑을 피조물에게 주어 구원하길 원하는 가장 완전한 존재로 소개할 때 그 안에 이런 의지가 잠에서 깨어나듯 깨어난다.

나는 사람들에게 단지 사랑이고 자기의 피조물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자신의 큰 사랑을 주려고 하는 가장 완전하신 존재로 소개해야 한다. 먼저 사람들이 이 내 사랑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나를 향한 사랑이 타오를 것이고 나와 하나가 되려고 갈망할 것이다. 그때서야 그는 내 자녀로 느끼고 나와 둘만의 대화를 갖고자 아버지를 갈망할 것이다. 그럴 때 더 이상 주춤거림이 없고 자녀가 아버지와 단둘이 대화하듯 나와 말할 것이며 내 사랑을 느끼며 내게 신뢰감을 가지고 나온다.

그리할 때 나는 그에게 임재하고 넓은 거리감은 제거되고 자녀는 내음성을 듣는다 왜냐면 자녀가 나를 추구할 때 스스로 사랑이 되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자녀가 아버지와 연합이 되게 한다. 너희가 이웃에게 원초에 그랬던 것처럼 나 자신을 다시 자신의 자녀들과 하나가 되길 원하는 그들의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면, 그들이 나에게 대한 큰 경계심을 버리고 그들이 어려움가운데 있을 때 크게 신뢰하며 나에게 의뢰할 것이다. 그들이 내 도움을 체험하면, 계속해 나에게 더 가까이 오려고 한다. 왜냐면 내 사랑이 그들을 붙잡았고 부드럽게 계속하여 위를 향해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

그런 후 언젠가 연합이 될 것이다. 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나로부터 떨어지려고 하지 않고 나를 더 열심히 추구한다. 그래서 큰 간격은 최종적으로 사라진다. 그들은 이제 나를 단지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여긴다. 그는 이제 아버지를 향한 그의 길을 가고 확실하게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잘못 된 관점. 잘못 된 가르침.

B.D. No. 8035

1961년 11월 7일

내가 너희에게 분노하며 복수하는 하나님으로 엄격하고 긍휼이 없는 항상 단지 벌을 주고 심판하고 절대로 은혜를 베풀지 않는 심판자로 묘사되면, 너희가 내 성품에 관해 얼마나 왜곡 된 관점으로 묘사 받은 것인가? 너희가 이런 하나님은 항상 단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희는 두려움에서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너희는 그의 계명을 단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나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관해 이런 관점을 만들게 되면, 너희는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되는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이런 목표를 이루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이렇게 소개된 존재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단지 너희의 사랑과 전적인 신뢰를 얻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나를 자신의 자녀들과 사랑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는 신실한 아버지로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 관한 올바른 관점을 얻어야만 한다. 너희가 영원한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느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체가 사랑이고 진리이고 권세인 최고로 온전한 존재인 내 성품에 관한 진리가 너희에게 주어져야만 한다.

너희가 잘못을 행했으면 너희에게 벌을 주는 한 분 하나님을 너희는 실제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벌을 주지 않고 항상 단지 너희가 최악된 상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너희를 도와준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너희에게 힘과 은혜를 선물한다. 나는 절대로 죄를 지은 존재를 깊은 것으로 빠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그를 저주하지 않고 항상 단지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 올리려고 시도할 것이다. 왜냐면 그가 스스로 깊은 곳으로 가는 길을 택한 것을 내가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다.

타락한 자를 죄를 지은 자를 다시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모든 수단은 내 사랑을 증거해 주는 것이고 절대로 내 끝없는 사랑과 일치할 수 없는 벌을 주는 행위가 아니다. 너희는 나를 복수하는 벌주는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가르침에 절대로 믿음을 줄 필요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한 심판을 아주 큰 잘못된 가르침으로 거절할 수 있다. 왜냐면 나는 절대로 피조물을 저주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자유의지로 깊은 곳을 추구한 것이고 나는 항상 단지 그를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공의를 무효화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단지 자유의지로 나를 떠나서 깊은 곳을 향한 존재들에게 축복을 선물할 수 없음을 너희에게 설명한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생각하면, 너희는 항상 단지 자상하고 아주 사랑이 충만한 너희에게 사랑을 선물해 줄 준비가 되어있는 그러나 그의 온전함으로 인해 영원한 질서를 무시하며 역사할 수 없는 아버지로 여겨야 한다.

그러나 존재에게 언제든지 나에게 돌아오는 길이 열려 있다. 가장 깊이 타락한 존재도 단지 나에게 요구하는 손을 벌리기만 하면 된다. 나는 이 손을 붙잡고 높은 것으로 이끌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과 내 긍휼은 아주 커서 존재가 자유의지로 자신을 나에게 맡길 때 내가 모든 죄를 간과하고 죄를 용서해주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인간 예수 안에서 이 죄를 위해 내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즉 공의가 요구하는 데로 죄값을 치른 것이다.

너희 사람들에게 내 성품을 모든 진실되게 설명하면, 나에게 향하는 길을 자유의지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해야만 하는 하나님을 너희는 적게 사랑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에게 너희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는 창조주 하나님인 나 자신에 관해 선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순수한 진리가 전해져야만 한다.

잘못된 가르침은 너희들 축복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잘못된 가르침을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확정 지어야만 한다. 왜냐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너희들 어두운 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너희가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녀에게서 아버지와 연결시키는 사랑이 우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 심장 안에 나에게 대한 두려움을 심는 내 대적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사랑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나와 내 성품에 관한 진리를 전할 것이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살면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아멘

창조하는 역사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역사였다.

B.D. No. 8975

1965년 5월 16일

내가 무한 가운데 역사하고 사역하게 만드는 원인이 나에게 끊임없는 창조하려는 의지와 변함없이 강한 내 힘과 그리고 활동해야만 하는 내 넘치는 사랑을 준다. 내 사랑은 활동해야만 하고 내 사랑을 받아 다시 나에게 주는 존재를 창조했을 때 비로소 성취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내 사랑은 내 사랑에 자신을 열고 내 사랑을 받아드리고 다시 돌려주는 그릇이 필요했고 이런 역사는 어떤 피조된 존재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게 행복하게 하는 역사였다.

끝없이 오랜 기간 동안 혼자 존재한 후에 상호 간에 교류하려는 갈망이 항상 더 강해졌다. 그러나 내가 이 전에 이미 생성한 영적 창조물들로 넘치게 기뻐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의지의 힘으로 모든 생각을 완성된 작품으로 보았고 이런 내 생각들은 무수히 많았고 이로써 내가 끊임없이 창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창조하는 힘이 줄어드는 일을 전혀 느끼지 않았고 반대로 내가 창조하는 힘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힘이 계속하여 증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사랑의 힘을 담은 나와 같은 그릇을 창조하고 이런 그릇이 모든 성품들을 갖게 해주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내 형상으로서 같은 창조하는 권세와 힘을 가진 존재를 생성하려는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생각으로 이미 모든 영광을 가진 내 뜻의 작품이 내 앞에 서있게 되기에 충분했다. 이로써 내가 그 안에서 나 자신을 깨닫고 내가 창조한 존재를 기뻐하게 되었다.

이런 존재와 교제하는 일이 나를 넘치게 행복하게 했다. 이런 존재는 내 형상이었다. 그러나 나는 존재에게 나를 보여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보여준다면, 그가 원래의 불 앞에 소멸되었을 것이기 때문이고 이런 원래의 불이 모든 영의 원래의 성분이지만 내 총만한 사랑과 권세와 힘을 견딜 수 있게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비록 존재들이 헤아릴 수 없게 축복되었지만 존재들은 항상 단지 발산된 불씨이고 영원한 빛을 볼 수 없는 내 피조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조물은 나에게 그릇이었고 내가 내 사랑의 힘을 그에게 흐르게 할 수 있었고 창조물은 또한 마찬가지로 창조하는 일을 위해 사랑의 힘을 다시 사용했다. 그의 소망이 같았기 때문에 그는 나와 함께 나와 같은 존재를 다시 생성했고 창조하는 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축복은 헤아릴 수 없게 컸다. 우리 둘의 사랑하려는 의지가 항상 새로운 존재를 생성했다. 왜냐하면 공간에 제한이 없었고 창조하는 힘이나 사랑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고 같은 방향을 향한 우리의 의지도 한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말씀을 통해 내 뜻을 계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둘에게서 나온 존재들에게도 내 뜻을 계시했다. 내 말씀이 그들 모두가 나를 그들의 기원이라는 증거를 주었고 이로써 그들이 이를 깨닫게 했고 그들은 끊임없이 내 음성을 듣고 또한 나에게 답할 수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질문을 할 수 있었고 나는 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는 동시에 생각하는

능력도 주었고 그들이 신적인 존재라는 증거인 자유의지로 이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씀을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강요받지 않았고 그들은 내 말씀이 자신 안에서 모든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 있었다. 이로써 그들이 그들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내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존재들이 초기에는 내 뜻에 저항하지 않았고 무한히 축복되었고 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이런 상태가 끝날 필요가 없었다. 나에 의해 첫 번째로 생성된 존재가 나를 볼 수 없었다는 하나의 생각을 잘 감당했고 스스로 자신에게 나를 보게 해줄 권세가 나에게 없다는 설명을 했다면 이 상태는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에게 시작점이 있는 반면에 나는 영원으로부터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내가 수정해줄 수 있도록 이런 의심을 나에게 아뢰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 앞에 감출 수 있다고 믿었다. 왜냐면 이런 생각이 항상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때때로 그 안에서 떠올랐고 그가 항상 내 사랑에 헌신하고 또한 내 사랑을 분산되지 않게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한때 자신에게 흘러오는 내 한결같은 사랑을 의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의심이 항상 또 다시 떠올랐고 이로써 그는 불신의 상태를 만들어 냈다. 이런 상태는 피조물과 나 사이에 영원히 있어서는 안 될 상태이다.

그러나 처음으로 창조된 원래의 영 안에 불신은 항상 더 강해졌고 게다가 이제 자신을 수많은 존재들을 창조한 창조자로 여겼고 창조된 존재들은 모든 영광을 가진 그를 볼 수 있었지만 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마찬가지로 생각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불신 가운데 잘못된 결론을 도출했다. 그럴지라도 그는 자신의 근원인 나를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자신이 그들의 창조자였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기를 희망했다. 왜냐면 그들이 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나 위로 올라섰고 이제 자신이 아주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 더 이상 내 힘이 필요하지 않다는 믿음으로 내 사랑의 힘을 거부했다. 이런 일이 그의 죄이고 그를 따른 모든 타락한 존재들의 죄이다.

(1965년 5월 16일) 이와 동시에 이제 모든 것이 반대인 두 번째 세계가 창조되었고 이 세계는 이제 이전의 내 대적자에 의해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창조된 모든 존재들이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도 내 의지와 내 권세 아래 있었고 모든 긍정적인 세력들이 부정적인 세력들과 싸웠다. 싸우는 목표는 항상 모든 부정적인 세력들을 되찾는 일이다. 비록 내가 처음 창조된 영에게 동일한 창조하는 권세와 힘을 주었지만, 그가 나를 떠나 타락함으로 이런 권세와 힘을 잃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자유를 준 반면에 나는 모든 타락한 존재들을 돌보았다. 즉 내가 존재들을 그로부터 빼앗아 모든 종류의 창조물로 형성했다. 왜냐면 내 사랑이 그들을 나에게 다시 데려올 길을 찾지 못했다면, 불행했고 영원히 불행하게 머물러야만 하는 그들의 상태를 내가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귀환하게 하는 과정은 끝없이 긴 시간이 걸리고 영원히 영원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내 대적자는 항상 단지 영적인 존재가 인간 단계에서 이 땅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신에게 속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그의 권리를 일시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존재가 자신을 도울 방법이 없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영접하지 않고 그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는 존재를 다시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한다. 이 기간 동안에 그의 권세는 강력하고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내 은혜는 측량할 수 없고 언제나 그의 권세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원하여 나에게 순종하는 일이 실제 가능하고 그러면 그의 불행한 상태가 끝나게 된다.

그러나 내 이전 나를 떠나 타락한 죄가 최종적으로 속죄 될 때까지 아직 영원한 시간은 지날 것이고 한때 가장 큰 빛의 영으로 나에게 의해 생성된 그가 귀환을 결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직 영원한 시간이 지날 것이다. 왜냐면 타락한 영들의 무리는 끝이 없게 많고 그들이 구원받은 존재로서 빛과 축복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대적자가 그들에게 부과한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기 까지 끝이 없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사랑은 끝이 없고 내 권세는 한계가 없고 내 지혜는 내가 영들의 세계를 창조할 때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상 생각한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의 목적.

B.D. No. 7556

1960년 3월 22일

내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고 타락 후에 세상적인 물질적인 종류의 모든 창조물들을 창조한 일은 내 사랑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다. 내 사랑은 표현하길 원했다. 사랑은 나와 같은 성정을 가진 말하자면 나 자신의 축소물인 존재 안에서 나 자신을 다시 찾길 원했다. 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내가 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존재를 내 곁에 두게 했다.

이런 존재들이 나를 떠나 타락하게 될 것을 내가 영원전부터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막지 않았다. 왜냐면 이는 그들의 자유의지였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러면 내 창조의 행위가 목적인 대로 언젠가 "피조물"대신에 "자녀들을" 내 곁에 둘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 피조물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일에 언젠가 도달할 때까지 긴 시간이 흘러갈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시간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내가 세운 목표가 모든 종류의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창조물들을 창조한 원인이 되었다. 왜냐면 창조물들은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자신들을 한때 생성되게 한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위해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비록 이런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과정을 위해 존재가 이 과정을 자유의지로 완수할 때까지 영원한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러나 존재는 언젠가 내 자녀로서 내 곁에서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말할 수 없이 축복될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로 굳은 물질에서 식물의 세계로 동물의 세계로 어느 정도 자유함이 있는 그러나 원래 초기에 가졌던 자유함은 아닌 인간의 상태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존재는 끝 없이 많은 단계들을 묶임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쳐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원래 초기에 가졌던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 존재가 내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그의 원래의 성분이 사랑이기 때

문에 존재 자신이 단지 내 비추임을 받기만 하면 된다. 즉 지금까지 나에게 등을 돌린 자신의 의지를 나에게 다시 향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 잘못 된 의지로 인해 자신을 잘못되게 형성시킨 존재는 다시 원래 상태로 변화되고 사랑이었던 그의 원래의 성품을 다시 영접한다. 그러면 존재는 영원한 내 계획에 따라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 것이고 나는 내 피조물들이 자유의지로 내 자녀가 되는 비교할 수 없이 축복 되는 내 목표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런 사랑으로 다시 변화되는 역사는 항상 자유의지를 전제로 한다. 이런 자유의지가 인간의 상태인 동안 내 방해를 받지 않고 다시 잘못 된 방향을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다시 변화되는 과정에 영원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왜냐면 자유의지는 절대 간섭받아서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가 스스로 자신의 불행한 상태의 기간을 정한다. 그러나 존재가 한 구원시대에 안에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는 일은 가능하다. 존재가 목표에 도달하게 모든 방식으로 그에게 도움이 주어질 것이다. 왜냐면 존재가 내 피조물이고 내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었기 때문에 내 사랑이 존재를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이 이 땅의 삶에서 너희의 자유의지에 얼마나 큰 중요성이 있는지 볼 것이다. 너희의 자유의지는 내 편에서나 내 대적자의 편에서 어떠한 강요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노력은 항상 단지 너희를 가르쳐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 이에 합당하게 자유의지를 사용하게 한다.

그러나 내 대적자가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럴지라도 그가 너희의 의지를 자신을 위해 얻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나는 항상 단지 너희의 의지가 올바른 방향을 향하게 너희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방향을 정하게 강요하지 않는다. 너희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을 정해야만 한다.

너희가 올바른 길을 가면, 너희는 나를 찾고 나와 연결을 다시 추구하면, 너희는 축복받은 것이다. 너희가 모든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자유롭고 빛이 충만한 영적인 존재로써 너희의 이 땅에서 존재하는 기간이 끝나면, 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목표에 이미 너희가 한 구원시대 안에 도달하는 일을 인간으로써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공시키면, 너희는 축복을 받은 것이다.

아멘

빛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

B.D. No. 7780

1960년 12월 24일

세상은 묶인 가운데 있다. 이 땅의 과정을 가는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담고 있는 루시퍼의 세상에서 사는 어떤 사람도 사탄의 사슬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라. 사탄은 사람들을 묶고 있고 그는 사람들을 영원히 자유롭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그 안에 사랑이 없고 그 안에는 단지 영원한 사랑이고 이 사랑으로부터 그를 생성한 나를 향한 미움과 저항만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묶임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묶임을 풀고 사슬을 끊고 타락한 자들이 다시 높은 곳으로 도달하게 돕고 사람들을 그의 권세로부터 구속하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왔다.

내가 이 땅에 임한 것은 가장 큰 긍휼의 역사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이런 불행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이 한때 자유의지로 그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들이 한때 자유의지로 떠났던 나에게 인도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는 길을 가리켜 주기 위해 나 자신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빛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이런 타락한 존재들에게 어떤 작은 빛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빛 자신이 이 땅에 임했다.

영원한 빛이 인간으로 이 땅의 과정을 가기 위해 아기 안에서 육신을 입었다. 아기 예수는 내 곁형체가 되었고 아기 예수는 내가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내 대적자와 공개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에게 돌아오려는 의지와 소원을 가진 혼들을 그로부터 얻기 위해 내가 사용한 인간적인 형체였다. 나는 이런 혼들을 위해 구매가격을 지불했고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희생했고 내 피로 내 대적자로부터 그들을 구매하여 자유롭게 했다.

그러므로 나는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은 이미 특별한 일이었다. 왜냐면 인간 예수가 내 곁형체로써 나 자신을 섬겨야 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최악 된 인류가 내 충만한 빛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빛이 자신을 가려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아기 예수는 이미 특별한 빛을 발산했다. 그러나 단지 사랑의 삶을 통해 빛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이로써 내 가까이에 거하는 일이 허용 된 사람들이 이 빛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누가 이런 내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나에게 이끌었고 그들은 그들의 왕에게 드리듯이 구유에 있는 아기에게 경배드렸다. 왜냐면 그들의 단순한 혼이 나를 깨닫고 나에게 경배했기 때문이다.

내가 태어나는 일은 숨겨진 가운데 일어났다. 왜냐면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발산 된 영의 충만함이 가장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 가장 깊은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성취되었

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심장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고 내가 태어남으로 그들의 희망이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몰랐다. 아기로부터 그들에게 내 사랑이 발산되었고 그들의 심장에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거룩한 나타남에 사로잡혀 그들의 모든 성정이 예수에게 향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 앞에 구유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몰랐다.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이로써 사람들에게 응답하는 사랑이 깨어나게 하는 내 사명이 시작되었다.

나 자신이 인간으로써 살게 되었고 나는 모든 자연의 법칙에 순응했다. 목표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 일인 이 땅의 과정을 나는 의식적으로 갔다. 한 동안 내 영이 역사하여 자신을 나타내었을 지라도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떠한 우월함도 없었다. 왜냐면 나는 나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너희 사람들에게 과제를 준 것과 같이 극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너희에게 모범이 되도록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육신을 영화시켜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야만 했다. 내가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의 삶이 나에게 주었다. 내가 인간으로 내 삶을 살았다면, 너희 모든 사람이 어린 시절에 내 실제적인 가르치는 일을 하기 전의 기간 동안 내가 행해야만 하고 행했던 것처럼 내 모범을 따라야 하고 너희 인간적인 육체를 하나님의 영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인간 예수 안에 거했다. 인간 예수는 자신을 가꾸어 내 거처로 섬겼고 그러므로 나는 인간 예수로써 충만한 영이었고 아버지 자신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고 기적을 행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 안으로 흐를 수 있는 영의 그릇으로 섬기려는 단지 진지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은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대적자의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와 연결을 이루면, 나 자신이 사슬을 풀어주고 그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이 땅의 과정을 갔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여 그들이 이제 나에게 돌아오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있게 하고 갈 수 있게 한다.

아멘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계시해주는 이유.

B.D. No. 5290

1952년 1월 6일

나는 너희에게 나를 계시하고, 너희를 도와 너희가 나 자신을 깨닫게 한다. 이로써 너희가 이 땅의 의지의 시험을 올바르게 합격하게 하고, 너희가 완전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한 때 나를 떠난 것처럼 너희가 나를 고백하게 한다. 그러나 너희가 눈이 먼 가운데 그의 의지로 너희를 생성했고 그의 의지를 너희 안에 넣어주고, 이제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도록 몰아 넣은 존재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았다. 당시에 너희는 나를 힘의 중심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수 없었고 그러므로 너희와 같은 존재인 그에게 향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 원래의 힘에 의해 생성되었다.

너희는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타락했고, 너희가 볼 수 있는 자를 따라갔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되찾기를 원했고, 내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사랑이 형체를 입고,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너희의 의지를 바꾸려고 하고, 너희의 출처인 위를 갈망하도록 사랑이 너희 안에서 불타오르게 만들려고 한다. 너희는 나를 깨달아야 하고, 이로써 너희가 나를 인정해야 하고, 너희를 한때 생성되게 한 나에 돌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계시한다.

사랑이 유일하게 너희를 다시 내게 돌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안에 이런 사랑이 깨어나게 하기 위한 모든 일을 시도하고, 너희에게 나를 계시한다. 왜냐면 너희가 추구해야 할 존재가 사랑을 받기 위해 너희의 인정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공개적으로 너희 앞에 내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가 그를 깨닫는다면, 실제 두려워하게 될 무한의 통치자요 권세자서가 아니라 단지 아버지에게 향하는 너희의 진정한 깊은 사랑을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긴밀한 사랑으로 자녀를 품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아버지로 계시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계시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내 안에 거하는 아버지를 깨닫고, 나를 전적으로 모두 그의 심장 안으로 영접했고, 그는 내 영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되었고, 내 영이 그를 완전히 통치하고 신적인 존재가 되게 했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 안에 내 강력한 영의 힘이 볼 수 있게 되었고, 나 자신이 형체 안으로 들어갔고, 이로써 너희가 나를 볼 수 있게 했고, 너희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를 추구하게 했다.

나는 너희를 다시 되찾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를 향한 사랑이 너희가 내 대적자와 분리하는 결정을 하게 해야 한다. 나는 너희 안에 이런 사랑이 타오르게하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 너희에게 나 자신을 계시하고, 너희의 모든 길 가운데 너희를 만나고, 너희의 생각에 자극을 해주고, 내 사랑의 힘을 모든 곳으로 흐르게 하고, 모든 길을 너희와 함께 가고, 단지 너희가 너희를 창조한 힘과 접촉하려는 준비된 의지를 갖는 순간만을 기다린다. 나는 너희가 영원히 소멸될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너희의 창조주라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 어떤 일도 시도하지 않고 남겨두지 않는다. 이로써 너희 안에 이런 존재를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너희가 이런 존재를 찾게 하고,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있게 한다.

너희의 이 땅의 모든 삶이 내 계시이다. 왜냐면 너희가 경험하는 모든 일과 너희 주변의 모든 것과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너희가 항상 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모든 일이 내 사역이고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역과 역사는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영적인 존재의 회복을 위한 일이다. 영적인 존재들은 나를 깨닫고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존재들을 무한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왜냐면 존재들이 영원히 내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된 일이 가장 큰 비밀이고 비밀로 남을 것이고 비록 너희에게 이를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설명할지라도 너희에게 있는 비밀로 남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내 성품을 전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를 항상 인격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존재하는 하나님을 어떤 제한된 존재로 상상하고 이 제한된 존재를 이제 두 존재 자체가 하나가 된 인간 예수 안에 대입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올바르지 않다. 왜냐면 내 성품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고 내 성품은 모든 것을 채우고 포함하는 제한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생각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능력이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에게 내 성품을 소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너희에게 제한이 있기 때문이고 너희가 아직 모든 제한이 없는 온전함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라도 너희는 단지 제한된 크기로 채워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 예수는 그가 온전하기 때문에 즉 그가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충만한 힘을 자신 안에 담았다.

그에게 하나님의 힘이 흘러 들어가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그는 전적으로 이 능력으로 충만했다. 그러므로 내 원래의 성품이 신적인 사랑의 힘이 그 안에 거했다. (1960년 10월 27일) 그러므로 나 자신이 그 안에 거할 수 있었고 그가 그의 겉형체를 이런 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내 힘에 의해 소멸되지 않고 인간 예수의 겉형체 안에 이런 힘을 전적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일을 가능하게 만든 그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 예수의 형체 안에서 자신을 단지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왜냐면 영원한 힘의 원천으로써 나는 어떤 존재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존재가 거대한 내 사랑의 불 바다를 한번 볼 수 있게 되면, 존재는 이를 절대로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나에게 제한을 가해야만 했고 나는 너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만 했고 이 형체를 이제 전적으로 충만하게 채웠다. 그러나 형체는 그렇지라도 영원으로부터 나 자신의 상태인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 머물렀다. 형체는 나를 보기를 갈망하는 내 피조물들 때문에 거할 수 있는 장소로써 가장 높고 온전한 존재를 섬겼다. 그렇지라도 그들은 내 성품을 영원히 헤아려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내 성품은 모든 창조된 존재들인 나로부터 한때 생성되어 나온 모든 존재에게 헤아릴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게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신성을 인격화하려는 일은 잘못이다. 왜냐면 나는 제한이 없는 영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채우는 능력이고 모든 무한 가운데로 발산되는 힘이며 모든 존재들과 모든 창조물들을 유지하고 그들이 유지되게 보장하는 힘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는 자신의 의지를 활용하는 존재이고 최고로 온전한 가운데 생각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항상 사랑과 지혜가 생각을 정하고 권능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는 존재이다.

한때 나에게 의해 창조된 존재가 나를 보기를 갈망했던 일이 그들이 나로부터 타락한 동기였다. 그러나 나는 모든 존재가 볼 수 있게 될 수 없었다. 왜냐면 그들에게 열리게 돼야만 했을

빛과 능력의 충만함 앞에 그들이 소멸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녀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기를 원했다. 나는 나를 그들에게 볼 수 있게 소개해주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겉형체 안에서 나를 소개했다. 그러나 겉형체는 이 전에 모든 충만함으로 내 빛과 내 능력을 자신 안으로 영접할 수 있기 위해 전적으로 영화되어야만 했고 겉형체도 영원한 내 원래의 존재와 같은 영적인 입자가 돼야만 했다. 이로써 나 자신이 이 형체를 채울 때 형체가 소멸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형체에 더 이상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사라졌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온 영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이었다.

나는 인간이 되었다. 그러나 단지 인간으로써 너희 죄를 용서하는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되었다. 그러나 인간 예수는 더 이상 인간으로 머물지 않았고 이 땅의 과정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고 그는 그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인 나와 전적으로 하나로 융합되었고 내 원래의 성품이 그 안에서 나타났다. 모든 것을 채우는 영원한 영이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 형체를 입었다. 이로써 나를 보고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고 나를 대면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내 모든 자녀들은 나는 볼 수 있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

B.D. No. 7816

1961년 2월 4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낸 일을 내 영을 통해 너희에게 계시해줄 것이다. 내가 제한된 존재로 창조한 존재들에게 나를 보여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피조물들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따로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면, 너희는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 영이 이미 아기 예수 안에 거했고 그가 태어난 직후에 내 영이 그 안에서 특별한 일을 행했다. 이로써 그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 안에 내 영이 거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인간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마쳤다. 그러나 예수의 몸은 영화되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입자들이 나와 하나가 되었고 내 영이 몸이 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었고 그에게 더 이상 인간적인 요소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인 나 자신이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모든 존재들이 보기를 갈망하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나는 영이고 그러므로 내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 안에서 나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너희는 나에게 대해 내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 외에는 다른 어떤 생각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기 원하고 나와 접촉하기를 원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만 하고 그와 단 둘의 대화를 나눠야만 하고 너희는 그 자신을 영원한 너희의 아버지로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따로 기도한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옳은 일이 될 수 없다. 인간 예수 안에 내 아들이었던 혼이 거했다. 이 혼은 내가 창조한 최고로 온전한 존재였고 영들의 큰 타락이 일어날 때 나와 함께 머물렀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인간의 겉형체 안에서 육신을 입는 일을 가능하게 했다. 이로써 영원한 아버지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러나 이로써 분리된 두 존재가 아니라 단지 한 하나님이 되었다. 왜냐하면 내 원래 존재인 신적인 영이 인간의 겉형체를 전적으로 모두 채워주었고 동시에 이 형체를 영화시켰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신적인 영이었고 이 영이 무한의 세계를 향해 발산되었고 단지 존재들에게 보이는 형체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다. 이로써 존재들이 상상을 할 수 있었고 자신을 이런 존재와 연결시키기 위해 이런 존재에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영들의 타락한 원죄는 그들이 자원하여 나를 떠난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면서 그들에게 자원하여 나와 연결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었다. 그러나 너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 자신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와 나는 하나이고 그를 부르는 사람은 또한 나 자신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를 보는 사람은 영원으로부터 존재했고 존재하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존재할 나 자신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이다.

B.D. No. 8422

1963년 2월 25일

너희가 가장 깊은 지혜를 영접할 능력이 있으면, 너희는 가장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단지 영이 깨어난 사람들이 이 모든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에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진리를 갈망하고 너희의 생각이 아직 전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을 얻기를 갈망하면, 나는 항상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도울 것이고 너희가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너희에게 말을 해줄 것이다. 나는 내 자녀들의 깨달은 정도에 알맞게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음성으로 말할 것이다. 실제로 내 성품은 헤아려 볼 수 없다. 비록 너희가 계속하여 더욱 완성에 도달할지라도 너희에게 내 성품은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헤아려 볼 수 없게 남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최고의 온전함을 추구해야 하고 이로써 마침내 나와와의 연합을 이뤄야 한다.

너희는 전적으로 내 성품과 같아져야 하고 너희가 한때 발산되어 나온 빛의 불씨로써 다시 영원한 내 사랑의 불과 하나가 되게 할지라도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로 남을 것이다. 너희가 인간으로써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희의 생각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와 하나가 되는 과정은 단지 모든 온전한 존재에게는 더 이상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와와의 연합이 실제 전적으로 내 사랑의 힘이 채워질 수 있게 만드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 자신이 너희에게 영원히 도달할 수 없게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절대로 나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제한된 존재로 상상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내가 시간과 공간에 묶여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전적으로 나로부터 온 내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긴밀하게 연합이 될지라도 너희는 영원히 더 이상 너희가 너희라는 의식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무한한 가운데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로 역사할 것이고 이런 일이 바로 너희의 축복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 세운 목표인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일에 도달한 것이고 너희가 내 형상이 된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원래 성품 안에서 나와 똑같이 되었고 너희는 가장 밝은 지혜의 빛 안에서 제한이 없는 능력을 소유한 가운데 전적으로 자유함 가운데 너희 자신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생성되게 하고 역사하며 창조할 수 있게 된다.

너희는 내 축소물의 된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의 혼도 같은 법칙 아래 있었고 예수의 혼은 나로부터 발생된 존재로써 그의 의지의 시험을 치러야 했고 합격했다. 그러므로 원래 창조된 영의 무리들이 나로부터 타락하였을 때 그는 나에게 머물렀다. 그는 사랑 안에서 나에게 전적으로 복종해 자유의지로 타락한 형제들을 위해 그들을 구속하고 내 자녀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

해 인간으로써 타락한 형제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는 이 땅의 사명을 위해 나에게 자신을 제공했다.

인간 예수는 전혀 전에 없었던 절대로 이 후에 인간이 행하거나 행하게 되지 않을 일회적인 역사를 완성했다. 그는 이 땅에서 이미 자신과 나와 전적으로 하나가 되게 했고 혼과 육체를 남김 없이 영화시켜 그에게 전적으로 비추임을 받을 수 있게 된 일을 그의 승천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했다. 그 안에서 나 자신이 현현할 수 있었고 영원한 신성이고 모든 것을 채우고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권세인 나 자신을 절대로 인격화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한 형제에게 전적으로 비추어 이 형제에게 어떤 인간적인 것도 더 이상 남지 않게 할 수 있다. 육체는 내 영으로부터 나온 영의 겉형체였고 혼은 내 안에서 완전히 자신을 바쳐 성취되었고 예수는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었다. 그의 의지와 그의 생각과 그가 행하는 일이 내 뜻이고 내 생각이고 내가 행하는 것이었고 더 이상 두 존재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나와 하나가 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다. 나에 의해 창조된 모든 존재에게 예수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 남게 되었다. 자신을 의식하는 예수의 혼은 자신의 혼 안에서 원래의 존재로 돌아 가게 되었다. 왜냐면 혼은 마찬가지로 발산되어 나온 사랑의 힘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의 힘은 단지 원래의 능력과 하나가 되어 원래의 능력 안에서 전적으로 헌신해서 예수를 이야기하면, 이제 단지 원래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의 혼은 완성에 도달한 영으로써 이 땅으로부터 돌아온 것이 아니고 혼은 이 땅에서 영원한 신성에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드렸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가장 큰 비밀을 위해 자신을 포기했다. 즉 한때 하나님의로부터 생성된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포기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예수는 두 번째의 자신을 인식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의 이 땅의 과정은 그가 나와 남김 없이 하나가 되어 내 뜻과 내 생각이 단지 그를 지배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영의 나라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최고요 마지막이 되게 했다. 너희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는 일은 너희에게 더 이상 상상력이 제한이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성품을 헤아려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헤아려 볼 수 있게 머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무한 가운데 최고로 온전한 존재인 너희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수 안에서 너희가 볼 수 있게 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하나님이 더 이상 없음을 알 것이다. 너희는 그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될 것이고 항상 영원히 그를 추구할 것이다. 그는 너희의 사랑에 응답하고 너희를 넘치게 행복하게 할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에는 제한이 없고 그러므로 축복에도 더 이상 제한이 없게 될 것이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전적으로 잘못 된 설명으로 해결하기 아주 어려운 많은 문제들 중의 하나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단순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게 답을 주면 해명은 영접을 받지 못한다. 왜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이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이를 생각해 보는 일을 사람들에게 금지한 개념을 통해 사람의 생각이 혼동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인격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든 것을 채우는 영으로 깨닫는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해명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신성이 그가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이해가 아버지 아들, 영이라는 개념을 이제 더 이상 잘못 생각하게 않게 한다. 왜냐면 이 개념에 자체가 사랑이요, 지혜요 능력이고 이 들이 하나가 된 단지 한 존재 만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러므로 창조자는 아버지이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고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들은 지혜이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불길이고 불길로부터 빛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사랑과 지혜는 서로 분리시킬 수 없다. 게다가 사랑은 항상 단지 최고의 지혜를 나타내는 능력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계속해 사랑을 발산한다. 발산 된 사랑은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한 모든 존재들의 마지막 완성을 돕는다. 그러므로 항상 단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영을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담고 있는 한 존재로 이해해야만 한다.

이 존재가 인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이 이제 신성으로부터 서로 달리 부를 수 있는 두번째 존재를 만들어 내는 일을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알아보지 않고 단순하게 깨우침을 받지 못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것을 단순히 영접하는 사람이 이 두 존재를 영으로써 하나로 말하는 것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한다는 것으로 증명되고 그들이 대부분 하나님 자신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증명되고 세가지로 서로 다르게 부르는 일이 항상 단지 한 귀에 도달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증명되고 영원한 신성이 분리될 수 없고 영원한 신성 자신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모든 것을 감싸고 채우고 있는 영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증명 된다.

아버지 아들, 영이라는 개념이 아직 깨어나지 못한 영을 가진 너희 사람들에게 너희 생각과 기도가 항상 아직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하게 한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 너희는 예수를 부른다. 너희는 영이 너희에게 오기를 구하며 영을 부른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에게 세가지 개념이 한 개념이 되었을 때 너희가 사랑으로써 아버지 지혜로써 아들, 능력으로써 영을 하나가 된 한 존재를 부를 때 너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한 것이고 그러면 비로소 올바르게 기도할 것이다.

왜냐면 비록 삼위일체의 가르침이 이 세가지가 하나라는 부가설명이 된 상태로 가르쳐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가르침은 사람들을 계속되는 잘못 된 관점으로 인도하는 큰 오류이다. 왜냐면 바로 예수 안의 하나님을 부르는 일에 큰 능력이 있고 아직 잘못 된 생각 가운데 살고 있고 이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너희가 이 능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진지한 생각이 너희와 너희의 깨달음에 큰 유익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전적으로 자유를 주었는데 그러나 너희가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영적인 자유를 활용해야 한다. 하나님 자신이 진실로 너희의 생각이 선명해지게 너희를 도울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고 그는 빛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기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인간 예수의 투쟁.

B.D. No. 7872

1961년 4월 14일

내가 인간으로 이 땅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했고 내가 원래 초기부터 나를 채우고 있는 사랑을 이 땅으로 가져왔다. 이 사랑은 단지 영원한 아버지에게 향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현재의 너희들이 더 이상 믿기를 원하지 않는 너무나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예고 된 메시아라는 증거를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나와 함께 이 땅에 사랑을 가져왔다. 그러나 나는 빛을 포기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빛의 광도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내 몸을 통해 혼을 괴롭히는 모든 성숙하지 못한 영들과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내가 인간으로서 성숙해야만 했기 때문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오직 사랑으로 이를 수 있는 영화의 길을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괴롭히는 성숙하지 못한 존재들을 달래려고 노력해야만 했고 사랑을 통해 내 안의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만 했고 이런 존재들이 자신의 갈망을 버리고 혼의 갈망에 순종하도록 노력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런 존재들이 영화가 되게 하고 혼과 하나가 되게 해야만 했다.

이 투쟁은 진정으로 쉽지 않은 투쟁이었다. 왜냐하면 내 인간적인 요소는 모든 사람과 같은 욕망과 욕망의 성취에 위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내가 위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 인간들과 다른 성정이 아니었다. 유혹하는 세상이 너희와 마찬가지로 나를 유혹했지만 내 혼이 단지 그런 유혹과 거리를 두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랑으로 세상 유혹이 어떤 위험을 주는 지를 깨달았고 내가 또한 인간 예수로서 수행해야 할 사명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체는 자신의 것을 요구했고 따라서 혼의 욕망을 따르고 모든 유혹에 꾸준히 저항하기 위해 내 투쟁은 종종 아주 어려웠다. 그러나 내 안의 사랑이 나에게 힘을 주었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저항할 수 없게 나를 아버지께로 이끌었고 아버지는 나를 거부하지 않았고 나를 점점 더 채워주었고 인간 예수인 내 안에서 역사했다. 나는 사랑이 부족한 인류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지를 깨달았고 이로써 인류에게 같은 유혹에 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는 이유를 알았고 사랑이 전혀 없는 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살게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들에게 사랑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쳤다.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었고 그들이 사랑의 삶의 효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려고 노력했고 이런 효력을 나 자신을 통해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었다. 내가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의 힘이 역사하게 했기 때문이고 사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신이 나를 통해 역사했기 때문이고 내가 사랑의 권능이 역사하게 했고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사람들에게 사랑이 부족했다. 그러나 나는 사랑으로 충만했다. 왜냐면 내가 사랑으로 아버지께 충성했고 원래에 창조된 영들의 무리가 아버지를 떠날 때 내가 아버지와 함께 머물렀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향한 내 사랑은 아주 컸고 이 땅으로 임했을 때에도 이 사랑을 버리지 않았다. 이 땅의 내 모든 삶은 끊임없는 사랑의 역사였다. 이로써 곧 몸도 또한 이 사랑에 순종했고 혼이 몸을 자신에게 끌어당겼고 혼이 몸과 함께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사랑의 충만함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덜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일은 잘못 된 일이다. 왜냐면 나는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영향 아래 있었고 악한 영들은 나를 붙잡아 넘어뜨리려고 시도했고 내가 그들을 물리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안의 사랑이 그들을 물리치는 일을 허용하지 않았고 사랑으로 나를 놓아주도록 설득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깊은 곳에서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내 도움을 약속했고 내 안에 거하는 큰 힘으로 나는 이런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더 많은 고통을 받았고 오직 큰 사랑의 힘이 단지 내 구속역사가 이뤄지게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 자신이 악한 영들의 희생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면 사랑인 아버지 자신이 내 안에 거했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이제 나를 따라야 하고 너희는 마찬가지로 너희 안과 밖의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싸울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 안에 너희의 힘을 증가시키는 사랑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나를 의지하여 나에게 힘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너희를 위해 얻은 구속역사의 은혜로 진실로 너희에게 힘이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없이는 너희는 대적자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내가 없이는 너희 의지가 너무 약하고 너희에게 힘이 없다. 나 자신이 내 구속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막으려는 내 대적자를 대항해 힘겨운 싸움을 싸웠다. 그러나 나는 사랑으로 싸움에서 이겼고 너무 연약한 너희를 돕기를 원한다. 왜냐면 너희가 완전히 영적이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타락한 영들의 세상에서 살고 있고 타락한 영들의 권세자의 포로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다. 즉 너희는 모든 세상의 욕망에 대항하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너희의 몸과 동시에 혼을 영화시키고 몸과 혼이 영원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더 이상 이 일을 혼자서 할 필요가 없고 이제 힘을 받고 너희가 너희를 한때 생성되게 한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을 가기 위해 단지 나에게 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힘의 제공은 너희 안에서 사랑이 타오르게 했고 최고 수준의 화염으로까지 타오르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가 이런 사랑을 통해 너희 안의 모든 악한 영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너희가 어떤 유혹에도 저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너희가 너희의 대적자로부터 너희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내 편에 서고 내가 진정으로 너희의 대적자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이 땅에 거했을 때 나는 인간으로서 인류의 큰 위험을 깨달았다. 왜냐면 내 안의 사랑이 강력했고 이로써 사람들이 처해 있는 위험과 그들의 상태와 또한 그들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악한 권세에 묶여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밝은 빛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었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가장 깊은 위험 가운데 시달리는 인류를 위해 희생하기로 결심을 했고 나는 내 사랑의 힘으로 대적자와 공개적으로 싸우기로 결심했다. 나는 내 사랑이 힘이고 내가 이 힘을 통해 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인간으로서 증명해주시기를 원했다. 나는 그의 미움에 대항하여 내 사랑을 사용하기를 원했고 이런 내 넘치는 사랑이 사람들을 그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야 했다.

나는 인간이 존재하게 된 원인을 알았고 존재가 한때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일을 알았다. 왜냐면 내 안의 사랑이 나에게 이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또한 단지 사랑이 그들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로서 내가 행한 노력들은 우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알려주고 그들이 내 대적자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일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이런 사랑의 삶의 절정이 십자가의 내 죽음이었다. 나는 이웃을 위한 사랑의 희생 제사를 아버지께 드렸고 이런 희생 제사를 통해 사람들의 혼들이 그들의 감옥의 간수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구매했다. 나는 내 생명으로 죄짐을 갚았다.

사랑이 단지 이런 희생을 할 수 있었고 사랑이 내 안에 거했다. 영원한 사랑인 아버지 자신이 나를 충만하게 채웠고 영원한 사랑 자신이 영적인 존재가 타락하고 대적자를 깊은 곳까지 따라간 일로 인해 지은 죄짐을 해결했다. 한때 깊은 곳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일은 단지 존재들이 사랑을 버리고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람들은 다시 사랑이 돼야만 한다. 사람들이 사랑이 될 힘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들에게 의지의 힘을 구매해 주었고 그들의 연약해진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했다.

그들은 이제 대적자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었다. 왜냐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세주인 나로부터 힘을 받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이제 내 구속역사 후에 영원한 사랑인 내가 자신을 열고 받아드리는 모든 존재에게 끊임없이 제공하는 사랑의 빛을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으로서 이웃의 큰 위험을 깨달았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온 천사 영으로서 이를 알았다. 나는 이 땅으로 임해 자녀들을 아버지께 데려오는 일을 위해 나 자신을 드렸고 영원한 사랑의 인간의 곁형체로 섬기기 위해 나 자신을 드렸다. 이로써 사랑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인간으로 이 땅의 과정을 갔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긍휼의 역사를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 왜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속죄로서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를 위해 큰 원죄를 없애기 위해 큰 속죄의 희생이 필요했고 내가 사랑이 충만한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 임했고 이 땅에서 내 삶은 끊임없이 사랑을 행하는 삶이었다. 사랑은 힘이고 사람들에게 이런

힘이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나를 따르도록 권면했다.

그러나 내가 구속 역사를 완성하기 전에는 대적자의 세력이 아주 강했고 사람들은 극도로 연약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대적자의 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줄 구원자가 임해야만 했고 사랑이 대적자를 패배시키는 일을 이뤄야만 했다. 왜냐면 대적자는 사랑 앞에 패배해야만 하고 그러므로 대적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 드리고 나와 내 역사 인정하고 자원하여 나에게 돌아와 다시 내 사랑의 흐름 안으로 들어 가기를 원하는 혼들을 보내줘야만 했다.

이런 구속 역사가 완성되었고 이로써 구속 역사의 은혜를 활용하고 나와 내 구속 역사를 인정하고 나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사랑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하는 모든 사람은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나를 따를 수 있게 될 것이고 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가 이제 행하는 사랑이 그가 이 땅에서 길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하는 힘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단지 영원한 사랑인 나 자신을 추구하고 나와 연합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는 한때 자유의지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그러므로 그는 자유의지로 귀환하는 일을 성취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귀환은 단지 사랑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사랑을 설교했고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전하도록 내 제자들을 파송했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너희를 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는 사랑이 전혀 없고 그러므로 내 대적자이고 내 구원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끝나고 영적인 모든 존재들이 나에게 돌아와 영원히 더 이상 죽음이 없게 될 때까지 내 대적자로 머물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원죄의 사함.

B.D. No. 7748

1960년 11월 17일

내 너희를 향한 큰 긍휼로 나는 인간 예수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내가 생성되게 한 존재들이 나를 대항해 죄를 졌다. 창조된 존재들을 넘치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내가 요구했던 결정해야 할 때 단지 창조된 존재의 일부분만이 나에게 남았다. 그들은 나를 보기를 원했다. 그들이 나를 보았다면, 거대한 빛의 충만한 때문에 존재들이 소멸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존재들은 그들이 볼 수 있는 내가 내 형상으로 첫 번째로 생성된 존재에게 향했다. 그러나 존재들에게 깨달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떠나 그 존재에게 향했다. 여기에 바로 그들이 깊은 곳으로 떨어진 큰 죄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상태를 긍휼히 여겼다.

이제 타락한 영들이 처해 있는 빛이 전혀 없는 존재들을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들을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내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면, 영원히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존재들을 나는 긍휼히 여겼다. 한때 존재들을 창조한 일은 사랑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그들을 깊은 곳까지 따라갔다. 내 끝없는 사랑은 타락했지만 나에게 속한 존재들에게 중단되지 않았다.

왜냐면 존재들은 내가 첫 번째로 창조한 존재인 루시퍼에게 쉬지 않고 흘러갔던, 그로 하여금 수많은 존재들을 창조할 수 있게 만든 내 능력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존재들은 나에게 속했다. 그러나 존재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죄를 졌다. 존재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내 대적자를 따랐다. 그러나 나는 이런 타락한 존재들의 운명을 긍휼히 여겼다. 나는 어느 주인에게 속하게 될지 의지의 시험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깊은 곳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에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을 그들에게 제공하기 원했다.

그러나 내 사랑의 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연약하게 된 존재들은 만약에 내가 그들에게 끝 없이 긴 기간이 지난 후에 자유의지를 다시 돌려줬다면, 그들의 의지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존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겼다. 존재들의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한때 지은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얻은 능력을 연약한 자들에게 주기 위한 구속사역을 하게 했다.

타락한 존재들을 향한 내 긍휼은 아주 컸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죄짐을 짊어지고 속죄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서 고난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속죄의 역사는 자신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 속죄를 행할 자세를 천명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야만 했다. 그의

사랑의 역사는 아주 고통이 충만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최고에 달했다. 인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실제 죄 사함을 이룬 분이다. 사랑이 나 자신이었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의 큰 권세였다.

나는 모든 능력으로 인간 예수 안에서 역사할 수 있었다. 그가 행하고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사랑에 의해 정해졌다. 그러므로 사랑이 구속사역을 완성한 것이다. 이 사랑은 인간의 형체 안에 있었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고난을 당했다. 사랑이 긍휼히 여겼고 사랑이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큰 죄짐을 해결했다. 사랑이 긍휼히 여겼고 사랑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열어 주었다. (1960년 11월 17일)

사랑만이 단지 유일하게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냐면 공의는 내 성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하면, 내 온전함에 의문이 제기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의 때문에 내가 내 피조물들을 다시 내 빛과 축복의 나라로 영접하기 전에 큰 죄가 해결돼야만 했다. 사랑이 자신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안에 거하는 길을 찾았다.

사랑 자신이 큰 죄짐을 짊어지고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는 일을 자원해 맞이하게 했다. 그 안에 영원으로부터 사랑인 나 자신을 담고 있는 인간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갔다. 단지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 단지 큰 긍휼만이 나로 하여금 아주 크게 불행하고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는 내 피조물들을 영접하게 했다.

왜냐면 대적자는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자기를 깊은 곳까지 따랐기 때문에 존재들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이런 그의 권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존재들은 나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얻기 위해 싸운다. 나는 그들의 의지가 강하게 되게 도와 그들 스스로 이제 자유롭게 되려고 시도하게 한다. 그들이 십자가를 통해 얻은 은혜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인간 예수는 나 자신을 자기 안에 받아들였다. 그는 사랑의 삶을 통해 영원한 사랑인 나 자신이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했고 내가 전적으로 모두 그에게 충만하게 비추어 그가 단지 자신 안의 사랑이 제시하는 것을 원하고 행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구속사역을 실행한 것이다. 왜냐면 인간 예수는 전적으로 내 의지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와 나는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이다. 단지 그의 겉형체가 사람들의 눈에 인간으로 보인 것이다. 그러나 겉형체는 영화되었고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까지만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면 단지 인간 예수만이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속죄하기 위해 그가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죄가 측량할 수 없게 컸기 때문에 그의 고통과 고난은 형용할 수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을 인정하는 구속사역의 은혜를 영접하는 나를 믿고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멘

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말할 수 없이 고통이 충만했다. 모든 고난을 묘사하는 일은 단지 내가 고통 당한 것에 비하면 연약한 비유일 뿐이다. 왜냐면 내가 구속사역의 모든 단계를 미리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지막 과제가 무엇인지 알았고 나에게 내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어떠한 위로도 없었다. 왜냐면 나는 마지막 시간을 단지 인간으로써 견뎌야만 했기 때문이다. 나는 실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마지막까지 나를 채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자신은 내 의지 의해 더 이상 사랑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 능력이 나 자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또는 없애기 위해 나 자신에게 더 이상 역사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주 큰 인류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큰 고난이 요구되는 구속사역이 전적으로 유효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내 안의 신성은 내 의지를 알고 있었고 스스로 뒤로 물러서면서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왜냐면 가장 큰 위험과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특별히 내 육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간절히 사모했던 내 아버지를 향한 내 사랑과 다시 사람들을 향한 내 사랑을 최고로 높은 정도로 얻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런 간절한 소원은 증가되었다. 왜냐면 내가 그의 역사와 그의 사랑의 힘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영원한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 가운데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 자신이 인간으로서 죄악 된 인류를 위한 긍휼의 사역을 끝까지 실행하기를 원했다. 왜냐면 내가 나 자신을 아버지 대신에 십자가에 못박게 하는 일은 내가 아버지에게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아버지 자신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을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고난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해 내 안에 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넘겨 받아 마지막까지 견디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려고 자주 시도할지라도 너희는 너희가 빛과 축복의 나라인 영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를 절대로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항상 단지 가장 간단한 설명을 해주는 말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가 전적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인간 예수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다. 그는 인간으로써 고난을 당했고 말할 수 없이 고통이 충만한 죽음의 고난을 당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신성과 하나가 되었다. 왜냐면 사랑이 마지막까지 인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행위를 모르고 있나이다."

사랑이 조용히 처신하면, 이렇게 하는 일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죽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가 세 번째 날 무덤으로부터 부활하기 위해 그의 육체가 무덤에 놓일 수 있게 하는 일이 구속사역을 완성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나타내는 모든 일은 결국 사람들이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심할 수 있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의 나와의 연결을 깨달았을 것이고 구속사역에 대한 믿음이 이

제 강제적인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속사역에 대한 믿음은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이 돼야만 한다.

너희는 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스스로 너희의 영을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하나로 만들 때 이것이 너희 안에서 밝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내가 이제 항상 너희 혼의 성장 정도와 사랑의 정도에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게 너희에게 설명해 주려고 시도하는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구속사역이 너희에게 순수한 진리를 전해주고 이를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로써 너희가 내 큰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내 사랑이 너희 사람들과 너희 죄짐을 위해 이 땅에 임했고 내 큰 사랑이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을 너희에게 다시 자유롭게 만들어 주고 너희의 큰 죄짐을 속죄해주기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왜냐면 너희의 큰 죄짐이 너희가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길을 영원히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

B.D. No. 7235

1958년 12월 21일

신적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짐을 드리기를 위해 그의 십자가 아래로 도피한 사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영접받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를 붙잡아 자신에게 끌어올린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예수그리스도가 그의 죄짐을 넘겨받고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그를 구원함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동시에 자신의 삶의 과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물질적인 곁형체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마지막 의지의 결정을 한 것이다. 왜냐면 인간으로써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는 자유한 영적인 존재로 그의 진정한 고향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물질의 곁형체를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로부터 도피하려는 그의 의지를 통해 모든 영적인 사슬이 끊어진다. 그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제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길을 택한 것은 생명으로 깨어나게 된 것과 같은 의미이다.

왜냐면 그는 이전에는 묶임을 받은 상태에서 무기력하고 죽음의 상태에서 어두운 영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산다. 그는 자유한 가운데 일할 수 있다. 왜냐면 그가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밝은 영을 가지고 있어 그가 자신의 삶을 이제 이 땅에서든지 또는 저세상에서든지 올바르게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고 단지 자유를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일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일은 동시에 한때 그들이 거부했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부한 죄가 이제 예수가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서 자신의 피를 흘린 후에 그러므로 사람 혼자서는 절대로 공의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는 공의를 만족시킨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인간 예수 안에서 한때 자신을 떠난 죄에 대한 속죄를 행했다.

그는 인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고통이 충만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신을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로서 인정하기를 요구한다. 이런 구속사역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피조물들을 위해 고난당하고 죽기 위해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간 아주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한다.

사람들은 단지 이런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세주인 그에게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들은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진실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고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오면, 자유로운 존재로서 영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죄짐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 사람들에게 쉽게 된 것은 확실하다.

왜냐면 사람에게 단지 예수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가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도움을 구하고 그가 자신의 죄짐을 가지고 그가 단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예수의 약속대로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는 것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생명은 단지 자유와 공의 가운데 가능하다. 이는 큰 죄짐을 사함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약속에 동참할 수 있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축복될 수 없다. 왜냐면 그가 자신이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자신의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자신의 구원.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B.D. No. 5106

1951년 4월 18일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에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결과로 묶임을 받은 상태에서 사람을 완전히 구원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그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영의 존재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일을 의미한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죄악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었다.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에 대항해 물리쳤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아주 강했고, 사탄에게 저항했고, 자신 안의 하나님의 일부인 사랑을 성장시켜, 하나님의 대적자를 무기력하게 만들 정도가 되게 했다. 왜냐면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온 힘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원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에 지은 죄로 인해 의지가 연약해졌고, 하나님의 대적자보다 열등하고, 단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왜냐면 사랑이 전혀 없는 자의 유산으로 인해 사랑을 행하려는 의지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의 피로 모든 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구매 가격을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돕는 분

으로 얻으면, 그는 사랑을 행하려는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이제 사람이 자신을 해방시키기를 원하면, 그는 더 이상 사람을 묶어 둘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인간의 구원 역사는 자유의지의 역사이다. 그러나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할 때, 자유한 의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일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은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그러나 자유롭게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면 사탄이 아직 그를 통제하고 있고, 그의 권세는 단지 예수에 의해 꺾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탄의 권세를 벗어나기 위해 예수 뒤에서 서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자신을 구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자신을 아주 잘 구원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먼저 자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세주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을지라도, 그를 위해 구속 역사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얻은 은혜를 활용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1951년 4월 18일) 사람들은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탄에게 신실하게 머물 수 있다. 사탄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존재의 창조에 참여했다. 왜냐면 그가 창조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탄의 자신의 뜻대로 힘을 사용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주 큰 사랑으로 구원하기를 원하는 존재 안에 하나님께 저항하려는 의지를 넣었다. 구속사역은 모든 존재를 위해 이뤄졌다. 그러나 어떤 존재도 강제로 구원받는 존재는 없고 존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받으려는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구속사가 존재를 위해 헛되게 이뤄진 것이 된다. 왜냐면 존재가 아직 계속하여 사탄을 자신의 주님으로 깨닫고, 그의 권세를 벗어나려는 소원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구속역사의 은혜.

B.D. No. 2101

1941년 10월 7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이룩한 구속 사역은 은혜이다. 이 은혜가 사람들이 그들의 약한 의지를 극복하게 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의 혼의 원수에게 대적할 수 없는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고, 그들이 힘과 은혜를 갈망한다면, 그들에게 힘과 은혜가 측량할 수 없게 흘러가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소한 의지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느끼게 하고, 이런 역사가 영적인 추구가 증가되는 일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전의 인류의 상태는 불쌍했고, 혼에게 높은 곳으로 향하려는 어떤 의지도 없었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죽음 후의 계속 산다는 믿음이 부족했고, 그들이 추구하는 일은 단지 이 땅의 이익과 육체적인 행복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이 땅의 삶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의 요청은 단지 이 땅의 삶의 향상을 위한 것이었고, 혼과 혼의 형성에는 주의를 기

울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영적인 노력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자세를 가진 인류가 되었다.

이런 역사는 아직 인간의 의지를 아주 많이 자신의 권세 아래 두고 있고, 그들을 서로에게 대항하게 하면서 사랑을 잃게 만든 대적자의 역사였다. 세상의 복지를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모든 수단이 옳았고, 그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일은 악하고, 사랑이 없었다. 그런 때에 인간 예수가 살았다. 예수의 심장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주 컸고, 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단지 가장 긴밀한 사랑으로만 가능했다.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었고, 그의 사랑은 고갈될 수 없었다. 예수는 영원한 사랑을 자신 안에 모셨다. 예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보았다. 그는 단지 사랑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알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설교했다. 이로써 사람들이 대적자의 권세를 벗어나게 했다. 그러나 대적자의 의지는 더 강했고, 그러므로 대적자가 항상 또 다시 인간의 의지를 짓눌렀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지를 자신의 의지로 만들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시켰다. 그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드렸고, 대적자로부터 자신의 의지에 대한 권세를 빼앗았다. 그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대적자의 의지를 꺾고, 자신이 인류를 위해 죽은 인류를 자유롭게 했다. 왜냐하면 인간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희생을 받아들였고, 구속 사역의 은혜를 활용하기를 원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더 큰 힘을 준다. 왜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또한 자신을 묶기 원하는 자로부터 도피하려는 갈망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대적자의 의지에 묶여있는 사람들에 속해 있다.

대적자는 아직 그들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들 자신의 의지는 대적자의 권세에서 벗어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대적자의 의지에 순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유롭게 될 수 없다. 예수는 혼자서는 너무 약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치렀다. 예수는 자신의 강한 의지로 대적자의 의지에 저항했고, 대적자는 이 의지를 견뎌낼 수 없었다. 왜냐면 예수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자신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힘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인간의 의지가 강해지는 일이, 사람이 높은 곳으로 향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는 일이 구속 사역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었다.

또한 인간이 예수를 모범으로 삼는 일이, 이로써 그가 이 땅에서 그의 삶을 예수를 모범으로 삼아, 사랑과 공의 안에서 사는 일이 은혜이다. 예수를 따르는 일에 대해 진지한 사람은, 예수를 모범으로 삼아 자신의 혼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

은, 자신의 십자가를 인내하며 짊어지고, 항상 단지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의지가 강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혼의 원수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왜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얻은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위로 향하는 길이 그에게 쉽게 될 것이다. 그는 이 길을 절대로 인도가 없이 갈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구세주의 형상이 항상 그에게 빛을 비추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죽었고, 그로 인해 그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면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어떤 일도 어렵게 되지 않을 것을 안다. 왜냐면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에게 힘을 주기 때문이다.

그가 예수께 긍휼을 구할 때, 그는 자신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을 안다. 그는 대적자의 권세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원한다면, 그가 대적자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왜냐면 그의 의지를 통해 그에게 힘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잡고, 그를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킨다. 그러나 그 전에는 인간의 의지가 너무 약해서,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없었다. 인간 예수는 이런 의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겼다. 그는 자신의 강한 의지로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대항하여, 그를 패배시켰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대적자를 패배시킬 것이다. 왜냐면 그가 의식적으로 구속역사의 은혜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아멘

인정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B.D. No. 5844

1954년 1월 3일

너희 사람들은 단지 나를 인정하거나 거부할 수밖에 없다. 거부하는 일은 너희에게 전혀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고 너희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면 나를 거부하는 일은 그가 아직 전적으로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가 공개적으로 나에게 저항하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인정하는 일은 그가 전적으로 내 편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써 그가 영원한 내 질서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 일을 의미하고,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여기고 나를 추구하는 일을 의미한다. 나를 추구하는 일은 단지 사랑의 삶을 통해 가능하다. 왜냐면 단지 사랑의 삶이 나와 연합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내가 단지 “예” 또는 “아니오” 만을 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단지 입술로 나를 고백하지만 그러나 입술로 말한 것에 심장이 함께 하지 않을 때 사용되는 회피하는 말로 사람들이 나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삶의 방식이 나를 진지하게 추구하는 일을 알게 해주지 않고, 너희의 삶의 방식에 사랑이 없고, 너희 심장 안에 내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너희 안의 믿음이 아직 아주 생명력이 없어 너희의 혼에 대한 작업을 열심히 하지 않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긴밀하게 도움과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너희의 길을 갈 때, 너희가 나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너희의 모든 말은 단지 너희의 진정한 혼의 상태에 대해 내가 속지 않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고, 나 자신을 거부하는 일과 같다.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또한 나와 함께 살고, 그는 계속해서 항상 또 다시 나와 생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나와 긴밀한 대화를 하고, 내가 아버지처럼 그에게 말하게 한다. 왜냐면 그가 자신을 내 자녀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영원히 되찾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고, 구속받은 사람들에 속한 사람이다. 왜냐면 구속 역사의 은혜를 통해 나에게 다가가려는 그의 의지가 단지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 단지 나에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은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은, 즉 의식적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두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나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나를 추구하지도 않는다. 왜냐면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생명력이 있게 된 사람이 비로소 나를 진지하게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람들을 위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 자신에게 너희가 얼마나 진지하게 나를 추구하는 지, 어느 정도 추구하는 지 질문해보라. 너희가 아직 내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았고, 너희가 단지 외적으로 나를 믿는 믿음을 나타내기 원하지만 그러나 너희 삶의 방식이 나와 모든 연결을 이루지 않으면, 너희가 나에게 속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믿지 말라.

만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을 아직 찾지 못했고, 너희가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하게 호소하지 않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이 없이 아직 대적자의 결박 속에 있다면, 말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한 기독교 교파에 속하는 일이 너희를 내 나라의 후보자가 되게 하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죄를 고백해야만 하고, 그가 너희를 위해 흘린 피로 말미암은 속죄를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의 부름이 들리면 큰 소리로 "예"라고 답하는 무리에 속하게 되고, 아버지께 달려가고, 최종적으로 내 대적자와 결별하고, 나를 긴밀하게 사랑하고, 나와 결혼하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나에게 속해 머무는 사람들에게 속하게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을 가지고 인정하는 일.

B.D. No. 6449

1956년 1월 11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도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름만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의식적으로 예수를 거부하지 않는 일은 소용이 없고 사람이 먼저 진지하게 예수에게 자신을 드러야만 한다. 그는 자신의 죄짐을 의식해야만 하고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짐과 연약함에서 자신을 구출할 수 있다고 믿어야만 하고 의식적으로 구원을 요청해야만 한다. 즉 그는 자신을 십자가 아래에 뒤야만 한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모든 사람에게 관습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고 사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깨달아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모든 사람을 구속했다. 즉 어느 누구도 그의 긍휼의 역사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뜻과는 반대로 그의 구속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먼저 그에 의해 구속 받으려는 의지를 표현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런 역사는 완전히 의식적인 역사이고 그가 먼저 하나님인간이 된 일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는 일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고백하고 이제 그의 뜻대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일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인정하는 일은 또한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도움은 구원역사 때문에 그들에게 확실하게 주어질 것이다. 구속 받는 일은 사람들을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자유롭게 되는 일은 어려움이 없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일을 의미하고 이런 일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어떤 혼도 자유롭게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단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가! 그들은 이런 믿음을 통해 그들의 눈에는 이교도인 사람들이 맞이할 운명을 피했다고 여기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는 그들의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단지 형식적인 믿음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결정을 강요받으면 저항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들은 가벼운 심장으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할 것이다. 왜냐면 믿음이 아직 그들 안에서 생명력이 있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지 잘못 된 이름을 부여한 진정한 이교도들이고 이교도들이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 그러므로 이런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그들에게 부과한 더 강력한 속박을 의미한다. 이런 속박에서 해방되기 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들이 이번의 삶에서 보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붙잡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들에게 다시 펼쳐질 때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모든 사람이 얼마나 쉽게 이런 큰 위험을 피할 수 있는가!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파되고 있고 그의 이름이 모든 곳에서 설득력이 있게 알려지고 모든 사람이 그에 감명을 받고 한번 그의 구속사역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도움을 줄 것이고 사람의 생각에 자신이 떠오르게 할 것이다. 진실로 너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런 질문에 대한 빛을 받기 원하는 의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각을 통해 그에게 말할 것이고 그가 자신에게 향하는 길을 진실로 쉽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인 믿음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앞선 것이 아니다. 왜냐면 그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류 가운데 아주 큰 위험이 있고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위험을 피하게 될 것이다.

아멘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없다.

B.D. No. 6579

1956년 6월 25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없다. 이 말이 얼마나 말할 수 없게 중요한 지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갖게 권면해야 할 불가피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한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 증명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고 그럴지라도 그는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은 아직 나와 가까운 연결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이 깨우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한 때 나를 떠난 죄가 아직 그들에게 남아 있고 이 죄가 그들을 내 대적자에게 묶이게 만든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한때 나를 떠난 죄를 알고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의 의미를 의식하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의 가르침이 알려지면, 그들이 예수가 이 땅에서 한 말을 깨달으면, 그들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이 말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이 단지 진지하게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받기 원했다면, 그들은 확실하게 설명

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이 그들을 더 이상 이 생각을 떠나게 해주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단 한 가지의 길 만이 있다. 왜냐면 내 영접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죄 사함을 받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로 죄를 지은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없이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다. 이는 내 끝이 없는 사랑도 어길 수 없는 법칙이다. 하나님을 실제 인정하지만 그러나 단지 말씀이나 또는 표면적인 생각으로 인정하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심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안전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진지한 생각이 느낌을 통해 그가 자신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에 서있지 않다는 것을 그에게 말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절대로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는 단지 한 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랑이 그의 영을 밝게 해주기 때문에 사랑을 선행 조건으로 하는 나와 긴밀한 연결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그의 영적인 관점을 날카롭게 해주었을 것이고 사랑이 그가 질문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사랑이 그가 오류가 있는 주장을 하지 않게 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어떠한 접촉도 하지 못한 모든 사람이 영적인 생각을 하면, 그들은 작은 불쾌감에 빠질 것이고 그에게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게 되지 않을 것이다. (1956년 6월 25일) 그는 항상 또 다시 자신의 이웃들과 대화를 하게 되거나 또는 이웃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항상 또 다시 이 땅에 거했고 고통이 충만한 죽음을 당한 인간 예수를 생각하게 그의 생각을 인도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예수의 이 땅의 삶을 알고 나 자신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기억나게 하고 그가 가진 사랑의 정도에 따라 영접하거나 거부할 것이다.

나 자신이 사랑이 있는 곳에서 사람에게 개입하고 그의 저항은 항상 줄어들 것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가 아직 전적으로 거부하는 자세를 가졌던 초기와는 다른 전혀 다른 빛으로 인간 예수가 그에게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가르칠 수 없게 되면, 너희의 의지는 죽음의 시간에 아직 대적하는 자세를 가진다. 그러면 그는 영의 나라에서 어떠한 축복도 기대할 수 없고 그는 그의 올바른 삶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단지 모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거하는 영역으로 영접받을 수 있다. 왜냐면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을 구속하게 허용하지 않았고 그가 묶임을 받은 가운데 영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영의 나라에서 아직 자신의 하나님의 구세주인 구원자를 찾을 수 있다. 내가 영의 나라에서 지금까지 나를 거부했던 모든 존재들을 만나는 일은 내가 베푸는 아주 큰 은혜이고 내가 구세주로서 나에게 향하는 모든 부름을 듣고 이제 부르는 자의 손을 잡고 그들의 영역으로부터 내 신적인 나라로 인도하는 일은 내가 베푸는 아주 큰 은혜이다. 왜냐면 내가 인정을 받고 혼이 단지 이 땅에서 거절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면, 나는 아직 깊은 곳에 있는 혼을 다시 데려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혼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빛의 나라의 문은 모든 혼에게 닫혀 있다. 그럴지라도 문을 열어주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속자로 인정하는 일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했다. 왜냐면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말했고 인간 예

수 안의 나 자신이 인정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내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내 걸형체로서 나를 섬겼다. 그러나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영이고 영으로써 모든 창조된 존재들이 볼 수 없었던 내가 영의 나라의 모든 내 피조물들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 영의 나라에서 이 걸형체를 유지했다.

너희 사람들에게 이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 나는 한 형체를 택했고 이 형체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자신이 거한 형체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이미 영원한 너희의 아버지인 나에게 향하는 올바른 길을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너희는 영원히 나에게 도달할 수 없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 대적자가 너희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고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통해 아직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

B.D. No. 7442

1959년 10월 31일

너희가 너희 죄에 대한 용서를 진지하게 받기 원하고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면, 너희 모두는 너희의 죄에 대한 내 용서를 받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로 가지고 간 죄짐은 엄청나게 컸다. 왜냐면 내가 짊어진 죄 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짐이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인류가 범한 원죄였고 이 땅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행한 모든 죄였다.

나는 모든 죄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갔다. 비록 죄가 아주 크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이 죄를 짊어졌다. 왜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로부터 너희를 속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에게 깨끗한 심장을 다시 주기를 원했고 그러면 너희가 단지 유일하게 깨끗한 심장 안에서 나에게 다시 가까이 다가올 수 있고 얼굴을 대면해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모두를 너희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 주기 원했다. 나는 너희를 짓누르는 죄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게 나로부터 떨어져 있게 만드는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행하기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내 구속사역을 통해 모든 죄를 해결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구속받으려는 의지를 요구한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나에게 구해야 한다. 왜냐면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가 인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의 죄짐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항상 구속받기를 원해야만 한다. 너희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다가와 너희의 구속을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고 내 대적자가 영원한 기간 동안 너희를 묶어 두고 있는 연약함과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너희는 어두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에게 충만해지고 너희 안의 사랑이 불이 붙어 밝은 화염으로 타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혀 사랑이 없는 자가 너희를 더 이상 자신의 권세 아래 두지 못한다. 자신이 사랑인 분이 너희에게 다가와 너희 심장 안에 자신의 빛을 비춘다. 왜냐면 심장이 이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해 주었고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고 너희 심장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로부터 구속을 받으면, 너희는 그의 뜻에 따라 사랑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사랑을 통해 나에게 성전으로 준비한 너희 심장 안에서 거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피할 수 없게 너희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하고 받았어야만 한다. 진지하게 용서받기를 원하는 일이 너희에게 전적인 용서를 보장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짐을 진 심장이 자신을 부르는 모든 부름을 듣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너희

요구를 성취시키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내 심장으로 끌어 드린다. 왜냐면 너희가 이제 그들을 위해 내가 이 땅에서 내 피를 흘린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너희의 죄의 고백을 원한다. 고백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왜냐면 너희 모두가 자신이 연약하고 불행한 피조물임을 알기 때문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나 자신이 그 안에서 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구속을 받기 전에는 너희가 자유가 없이 영의 어두움 가운데 살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의 이웃을 향한 사랑은 아주 커서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 원했고 자신 안에 거하는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을 그들에게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죄를 해결하기 원했다. 그는 그의 사랑이 아주 커서 모든 사람이 단지 아버지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축복에 도달하게 돕기 원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해 그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게 했다. 죄는 나와 존재들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을 했다. 이 간격은 극복해야만 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속사역과 자신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 간격을 극복했다.

그는 사람들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았고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도달하게 도왔고 그는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모든 사람이 축복될 수 있게 했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너희가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하라. 너희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를 구하라. 너희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너희는 깨끗함을 받고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향하는 길과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보다 먼저 간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길을 열어준 것이다. 축복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이 길을 가야만 한다.

아멘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야만 한다.

B.D. No. 7717

1960년 10월 1일

너희 모두는 다시 하늘의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 모두는 다시 아버지인 내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너희 모두는 측량할 수 없이 축복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이 땅의 육신 안에서 또는 저세상에서 아직 온전하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 그러나 언젠가 너희 심장이 사랑으로 불타올라 아버지의 심장을 향해 달려오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내가 영들을 창조할 때 세운 내 목표에 도달한다. 단지 내 사랑이 결정할 수 있으면, 너희 모두는 이미 오래 전에 하늘나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내 자녀들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측량할 수 없이 축복되게 해주기 원한다. 그러나 내 사랑은 내 영원한 법을 여기면서 행할 수 없다. 이 법은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왔고 자유의지로 나를 떠나던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오는 일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한때 타락했던 원래의 영인 너희 사람들에게 높은 곳을 향하는 길은 아주 서로 다른 긴 시간이 걸린다. 짧은 시간 안에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여러 성장 시대가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는 너희에게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고통과 묵임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너희는 언젠가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인간인 너희는 묶임을 받은 상태에서 고통이 충만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이 고통을 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인간으로써 이미 오래 전에 극복했던 상태로 다시 돌아 가지 않게 너희에게 이 고통을 피하게 해주기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의 기간 동안 너희의 인도자로서 나 자신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높은 곳으로 향하는 가장 짧은 길을 너희에게 알려 주기 위해 순례자의 길 가운데 너희와 함께한다.

높은 곳에 향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길이다. 이 길을 가는 자는 전적으로 확실하게 나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면, 이로써 너희를 위해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죄를 해결한 그가 너희를 구속하게 하면, 너희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로 향하는 이 길은 이 땅에서 또는 저세상에서 피할 수 없이 가야만 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타락하였을 때 공의 때문에 뒤로 물러서야만 했던 내 사랑이 다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의는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은 인간 예수를 통해 충족되었다. 그러므로 내 사랑이 대가를 지불했고 공의가 무효화 된 것이 아니다. 왜냐면 내가 인간으로써 넘치는 고난과 고통을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큰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의 의지가 이런 희생제사를 이제 영접해야만 한다. 너희의 의지가 죄를 용서해 주기를 의식적으로 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스스로 십자가 아래서 죄를 고백해야만 한다. 너희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의 긍휼과 그의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 너희는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택해야만 한다.

그러면 내 사랑이 너희를 다시 감쌀 수 있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한때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너희를 십자가를 통해 구속했다. 너희가 한번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택하면, 그러면 너희의 이 땅의 과정은 완성에 이른다.

그러면 너희가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을 해주는 성장단계 도달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다시 한번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일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면 너희는 영의 나라에서 항상 더 높게 성장할 것이다. 내 사랑이 너희를 이끌 것이다.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은 항상 강해질 것이다. 아버지와 자녀는 하나가 될 것이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는 축복에 제한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은 제한이 없고 나 자신을 영원히 선물해 주기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원수에 대항하는 더 강력한 싸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일.

B.D. No. 6827

1957년 5월 11일

대적자가 아직 너희를 강하게 공격하면, 그에게 저항하라. 다시 말해 나에게 도피하라. 대적자는 너희를 피해야만 한다. 너희가 이 길을 가면, 너희가 너희 생각을 즉시 나에게 향하고 내 보호를 구하면, 너희가 단지 그에게 저항하기 원하면, 너희는 쉽게 그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적자는 너희가 즉시로 너희 자신을 나에게 속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일에 성공해서 너희에게 저항을 힘이 없게 만드는 일에 성공한다. 너희 모두가 내 도움을 받아 저항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내가 없이는 너희는 연약하고 힘이 없어 내 대적자가 너희에 대한 권세를 갖게 되는 일에 대해 항상 너희에게 주의를 주기 원한다.

너희는 항상 너희를 돕기 원하는 너희의 부름을 기다리는 빛의 존재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빛의 존재는 단지 내 사명을 기다리고 만약에 너희가 단지 나를 생각하면, 번개같이 빠르게 방어할 자세가 되어 있다. 너희는 나와 항상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나를 부르는 일이 너희에게 당연한 일이 되어 한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유혹에 저항할 수 있을 것이고 너희는 대적자가 나에게 속한 사람들 가운데 풍성한 소득을 얻기 위해 항상 또 다시 던지는 그물에 걸려 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단지 지속적인 싸움을 통해 승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면 싸움이 없는 상태는 너희 혼에게 성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싸움은 더욱 격렬하게 될 것이고 유혹은 더 커지게 될 것이고 내 대적자의 역사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내 은혜의 흐름도 항상 충만하게 흐르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모든 방식으로 도움이 제공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단지 심장으로 나에게 속하고 계속해 나에게 머물기 원하면, 너희는 모든 싸움에서 패배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의 모든 유혹하는 기술이 쓸모가 없고 그는 너희를 떠난다. 왜냐면 나로부터 나오는 빛이 그의 눈을 부시게 하고 너희는 이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사랑을 행함으로 너희 안에 내가 임재 할 수 있게 하면, 너희 스스로 그가 가까이 다가오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너희에게 접근할 수 없다. 왜냐면 그는 내 가까이에 다가오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의 권세와 그의 역사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나 다가오는 때에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위해 모든 각각의 사람들에게 많은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너희에게 말해줘야 한다. 그의 역사는 너희에게 불안과 평안 없음과 사람들 간의 원수를 맺는 일과 미움으로 포장 된 사랑 없음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는 모든 곳에서 항상 또 다시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들 사용해 사람들 간에 서로 싸우게 만들려고 혼돈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일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런 불안에 빠져서는 안 되고 너희는 가장 큰 인내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 항상 단지 너희 눈을 나에게 돌려야 한다. 왜냐면 단지 나를 향한 부르음만으로 그가 너희로부터 물러나게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유혹 가운데 나에게 향하는 올바른 길을 가면, 너희는 다시 한 걸음 성장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패배당할 것이다. 너희는 모두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하고 너희는 그보다 더 강한 분을 불러야 한다. 너희는 너희 이웃에게 그의 세력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권세를 꺾은 분을 알려 줘야 한다.

항상 모든 육체와 혼의 공격 속에서 단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면 진실로 너희 혼의 원수는 너희에 대한 모든 권세를 잃는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어떤 부르기도 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적자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는 너희에게 능력을 주고 그의 도움으로 너희는 대적자에게 항상 저항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너희는 내가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권세를 무너뜨린 자에 대항하여 승리할 것이다.

아멘

예수 이름이 마귀를 물리친다.

B.D. No. 6169

1955년 1월 19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마귀에게 물러가라고 명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너희는 확실한 수단인 너희의 주님인 구세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전적인 믿음으로 이 이름을 말하면, 이 이름은 모든 악한 세력들과 내 대적자의 사명을 받아 역사하면서 너희를 압제하는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내 이름의 힘으로 말하면, 이런 세력들은 너희를 떠나야만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멸망받지 않기 위해 내 이름을 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항상 단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자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자신을 드리는 일이다. 너희는 나를 부르거나 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주기를 원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떤 악한 존재도 너희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의지가 너희를 해치기 원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선행 조건은 너희 자신이 나에게 속하기를 원하는 일이고 너희에게 나 자신과 내 기쁨을 얻으려는 진지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일이다. 즉 너희가 의식적으로 나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 내 대적자가 너희를 더 난폭하게 공격할 것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너희가 나를 떠나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는 너희에게 자신의 나라를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로 제시할 것이다. 그는 가면을 쓰고 너희에게 다가와 너희의 감각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그가 요구하는 것을 가능한한 갈망할 만하게 만들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로써 너희가 그가 요구하는 일이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는 이미 너희를 유혹할 올바른 방법을 찾는다. 그러나 너희가 나와 연결을 구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그와 그의 음모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

너희는 항상 나를 불러야 하고 너희 자신이 의심에 빠지거나 또는 너희가 내 대적자의 위협을 느낄 때 너희는 항상 전적으로 긴밀하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너희는 단지 나를 너희 심장에서 쫓아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내 대적자에게 유리한 싸움이 되고 너희가

대적자의 욕망에 굴복하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이 종종 그에게 저항하기에 너무 연약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적자를 알고 대적자의 주인인 분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긴밀한 부르짖음이 너희를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고 예수 이름을 깊은 믿음으로 부를 때 예수 이름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 왜냐면 너희가 예수 안의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인 나 자신을 부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너희 혼이 스스로 나를 갈망하면 너희를 진실로 너희 혼을 얻기 위해 대항하여 싸우는 대적자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아멘

힘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 교만. 겸손.

B.D. No. 8589

1963년 8월 18일

너희 자신을 위해 뿐만 아니라 너희의 이웃들과 영의 나라의 모든 혼들을 위해 너희가 내 은혜를 계속하여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이 은혜를 구하면, 너희의 이런 은혜를 구하는 부탁은 항상 겸손의 행위이다. 왜냐면 이를 통해 너희는 너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런 연약함 가운데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해주기를 나에게 구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연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겸손한 자에게 나는 내 은혜를 베푼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즉 이웃이나 또는 저세상에 있는 혼들을 위해 은혜를 구하면, 이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행위이다. 왜냐면 너희는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마찬가지로 연약한 이런 혼들을 위해 능력을 구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사랑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은혜를 부여줄 것이다.

그러나 항상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영적인 부탁은 진실로 너희에게 항상 성취될 것이다. 너희는 항상 단지 겸손한 심장으로 나에게 부탁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너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단지 나로부터 힘과 은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온전하게 되길 갈망하고 이를 위해 너희는 나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다.

너희가 한때 너희 스스로를 강하게 여기고 나와 내 능력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로부터 타락했다는 것을 너희가 생각해 본다면 너희의 자유의지로 온전함을 버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육신을 입는다.

이런 귀환은 나로부터 타락할 때처럼 반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너희는 교만했고 넘치는 능력을 가졌던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가장 깊은 겸손 가운데 너희의 연약함을 깨닫고 너희가 나에게 능력을 주기를 구하면서 너희의 연약함 고백해야 한다. 너희가 자유의지로 한 때 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벌어들이지 않은 너희 스스로 한때 버렸던 선물인 은혜를 나에게 구해야만 한다.

그러나 내가 힘과 은혜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아주 기뻐하며 성취시켜 준다는 것을 믿어라. 너희가 다시 온전함에 도달하는 것이 단지 나와 연합이 됨으로써만 주어 질 수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해 다시 나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다. 너희의 부족함과 너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일이 이미 내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선물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나에게 힘과 은혜를 구해야 한다. 이런 구함은 내가 너희에게 거절할 수 없이 성취시키는 영적인 기도이다. 왜냐면 내 축복은 내 피조물들에게 그들이 위로

성장할 수 있게 나에게 계속하여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끊임없이 사랑의 힘을 전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 자신의 힘으로는 너희가 특별하게 사랑을 행해 스스로 능력을 벌어들인 않으면, 너희 자신의 힘으로는 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확실하게 이를 받을 수 있는 보장을 한다. 왜냐면 나는 항상 또다시 겸손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는 것을 단지 겸손한 심장이 이런 기도를 나에게 드린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단지 너희에게 이런 기도가 성취될 것임을 보장한다. 너희가 이런 기도를 통해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오기 원함을 고백하면, 이로써 너희는 이미 이 땅의 의지의 시험인 너희가 한때 교만과 지배욕을 가지고 떠났던 나에게 자유의지로 들어오는 일에 합격한다.

도움을 구하는 자는 교만하지 않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나에게 스스로 복종한다. 그의 겸손 때문에 나는 이제 측량할 수 없이 그에게 나눠 줄 수 있다. 진실로 어느 누구도 내가 아주 기뻐하며 듣고 성취시킬 이런 기도를 나에게 드리는 사람이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힘과 은혜를 구하려는 생각이 너희 안에서 떠오르면, 너희는 나를 너희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는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던 간에 상관 없이 긴밀한 기도가 증거하는 나와 연결이 이미 됐다. 힘과 은혜는 영적인 재산으로써 내가 절대로 이를 구하는 자에게 금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기도가 그의 겸손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내가 약속한 것처럼 나는 항상 겸손한 사람에게 나에게 은혜를 선물해줄 것이다.

아멘

예수를 통한 의지의 강화와 능력의 제공.

B.D. No. 7762

1960년 12월 2일

나는 너희가 너희를 형체로부터 최종적으로 자유롭게 하기에는 너희 혼자 힘의 너무 연약함을 너희가 항상 생각하게 해줘야만 한다. 너희는 초기에는 내 대적자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없다. 왜냐면 너희의 의지가 연약하게 머물고 너희에게 어떤 빛도 없기 때문에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향하게 할 능력이 너희 자신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지가 먼저 강하게 돼야만 한다. 단지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지를 강하게 할 수 있다. 왜냐면 그는 십자가의 자신의 죽음을 통해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하는 은혜를 구매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한때 나를 떠난 타락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을 전적으로 내 대적자의 권세에게 받쳤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구속사역을 통해 너희를 대적자로부터 구매하지 않았으면, 내 대적자는 절대도 스스로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 자신이 원하면, 대적자는 너희에 대한 권리가 더 이상 없다. 너희는 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능력이 필요하다. 너희는 언젠가 너희의 의지를 행동으

로 옮길 수 있기 위해 강한 의지와 능력의 제공이 필요하다. 너희는 이런 의지를 나에게 향하게 해야만 하고 내 의지 아래 두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내 뜻대로 살아야만 한다.

내 뜻을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에 복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당시 너희의 상태는 빛과 능력의 상태가 아니다. 너희는 너희의 원래 상태를 나와 너희와의 관계를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영의 어두움 속에 사는 연약한 피조물이다.

만약에 내가 예수의 구속사역을 통해 너희에게 충만하게 제공되는 능력을 너희에게 제공해주지 않았으면, 너희는 절대로 이런 부족한 상태를 벗어나서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없고 너희는 절대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너희를 위해 인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돕기 위해 너희의 무능력함을 해결하기 위해 너희에게 나에게 향하는 길을 밝혀 주기 위해 너희가 스스로 원하면, 너희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를 위해 단지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단지 예수 안의 나에게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도움을 주기를 너희가 높은 곳으로 향할 때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해주기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모든 기도는 성취될 것이다.

구속사역을 믿는 가운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가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죄의 결과인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는 어느 누구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한때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로써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되었던 나 자신을 다시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이런 구속역사를 완성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너희 자신을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할 능력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린 분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만약에 너희가 그에게 향하는 길을 진실로 너희를 그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였을 나를 택하지 않았으면, 너희는 영원히 그의 권세 아래 남게 되었을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

B.D. No. 8019

1961년 10월 15일

인간으로 이 땅에 삶의 길은 너희가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는 성장 과정에 마지막 짧은 단계이다. 그러나 너희가 마지막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 올바르게 활용해야만 하는 자유의지를 되돌려 받고 인간으로써 너희 자신이 이 과정을 종료시킬지를 정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큰 책임을 지고 있다. 왜냐면 너희가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또는 영원한 기간에 대한 너희의 운명을 다시 정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올바른 방향을 가진 의지를 가지면, 너희가 너희의 이 땅에 육신을 벗어날 때 모든 형태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이 땅에 삶을 활용하지 않고 너희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사랑으로 다시 변화시켜야만 하는 너희 성품의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너희는 새롭게 가장 굳은 형태를 입을 수 있다.

너희의 성품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인간으로 이 땅에 삶을 사는 유일한 목적이다. 너희는 이런 변화시키는 역사를 완성시킬 기회를 항상 가지고 있다. 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모든 지원을 하고 내가 내 피조물이 내 자녀로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그들이 목표에 도달할 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의지를 자유롭게 못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들이 한때 나를 떠났고 이로써 깊고도 깊은 곳으로 빠진 것처럼 그들 자신이 자유의지 가운데 나에게 돌아와야만 한다.

너희 사람들 혼자서는 너무 연약한 곳에 내가 모든 연약함과 실수를 감당하고 돕고 나를 너희에게 계시를 해주어 너희가 나를 깨닫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내가 너희가 단지 이 땅의 삶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제한이 없는 분량의 은혜를 너희에게 부여 줄 것이다. 왜냐면 너희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로부터 떠나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너희의 의지를 정할 수 없는 내 대적자와 싸움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혼에 달라붙어 있는 모든 충동과 정욕과 싸워야만 하고 너희가 성장하려는 이 땅의 삶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는 굳건한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너희는 나에게 요청을 해야만 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응답하고 너희를 영원히 더 이상 놓치지 않기 위해 나에게 끌어들이는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가 너희의 완성을 이루는데 능력이 부족하게 될까 봐 염려할 필요 없다. 왜냐면 한 사람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 상의 자신의 죽음을 통해 능력을 구매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단지 그의 구속역사의 은혜를 요구하고 그가 너희의 죄짐을 용서해주기 원하고 너희가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 땅에서 완성시키기 위해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하면, 너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그의 구속사역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그에게 향하게 하면, 너희는 나를 다시 깨달은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떠나갔던 너희의 나에게 귀환이 아버지의 집인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이 보장 된다.

너희가 단지 나 자신을 모든 충만함으로 자신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면, 너희는 진실로 짧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마지막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왜냐면 인간 예수가 원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자신의 피로 공의를 위해 큰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는 일을 통해 타락한 너희의 원죄를 내가 용서하기 때문이다. 너희 스스로는 절대로 이런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속죄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다. 왜냐면 사랑이 단지 이런 죄를 속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가 자신의 고통을 당하는 형제를 위해 이런 사랑을 드렸고 그는 이런 사랑으로 충만했고 이런 사랑이 인간 예수 자신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게 했다.

이런 사랑이 나 자신이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에게 나에게 향하는 길이 다시 열려지게 되었다.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고 나는 너희를 다시 내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그를 인정하면, 그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즉 그 안의 나를 인정하면, 너희의 죄가 예수를 통해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그를 부르는 자는 나를 부르는 것이다. 언젠가 그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얼굴을 대면해 나를 보게 된다.

아멘

예수를 올바르게 따르는 일.

B.D. No. 7874

1961년 4월 16일

이 땅에서 나와 같이 살려고 노력하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복종하는 가운데 견디고 자신 안의 사랑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내 올바른 제자이다. 왜냐면 이런 사람의 혼은 성장하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단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권면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이 길을 갔기 때문이다.

그의 삶은 진실로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복종하며 견디어 냈다. 그는 어두움에 대항해 싸웠다. 다시 말해 그는 모든 곳에서 질서를 다시 세우고 사람들에게 왜 그들이 영의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됐는지 이런 어두움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빛을 전해주려고 시도했다. 그는 의식하는 가운데 고난과 사랑의 길을 갔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형성하여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했다. 너희 모두는 이 길을 가야 한다. 사랑과 고난을 통해 너희를 형성하여 영원한 사랑인 나 자신이 너희에게 임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너희는 나를 따라야만 한다. 너희는 인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았던 삶을 따라 살려고 시도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나와 다시 하나가 되려는 너희의 의지가 필요하다. 단지 사랑이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고난은 많은 성숙하지 못한 입자들을 담고 있는 너희의 혼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너희 안의 영의 갈망을 따르는 육체는 영화 된다. 육체는 혼과 같이 성장해 나와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정화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만 한다. 이런 정화되는 목적을 위해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한다. 너희가 나를 모범으로 삼으면, 너희의 이 땅의 과정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전적으로 영화가 되어 나와 하나가 되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한 사람이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일이 너희의 능력과 힘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따를 수 없다는 핑계를 항상 댈 것이다. 나 자신이 인간으로써 이 땅에서 간 길은 모든 사람이 나를 따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너희에게 불가능 한 일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죄악 된 사람들이 실행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왜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성향과 형편에 내가 처해 보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넘어서는 성장을 한다.

왜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어두움과 싸움에서 내 대적자에 의한 모든 시험에서 모든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한 넘치는 능력을 받은 것처럼 너희가 나로부터 능력을 받기 때문이다. 사랑은 능력이다. 그러므로 나는 가장 먼저 사랑을 설교해야만 했고 너희를 깊은 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너희에게 대적자로부터 자유를 주는 올바른 삶의 방식의 모범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랑 안에서 살아야만 했다.

왜냐면 사랑이 대적자를 패배시키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원하면, 너희는 나를 따라야만 한다.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때 불순물로 짝 차 있던 너희 혼이 밝고 선명하게 되어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의 혼이 아직 자신의 성품을 반대로 바꾼 자의, 그러므로 진실로 악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의, 영역에 거하며 너희가 나를 떠나 자유의지를 그를 깊은 곳까지 따라 갔을 때 너희 성품이 그의 성품과 같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혼의 입자들이 창조물의 과정을 통해 인간의 혼으로 혼의 입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훨씬 더 순수해졌지만 그러나 아직 많은 버려야 할 불순물들을 가지고 있다. 버리는 일은 단지 사랑과 고난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인정하고 너희의 죄짐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 너희 죄의 용서를 받는 일은 너희에게 확실하다.

이는 너희가 이 땅을 떠나면, 빛의 나라의 문에 열릴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비추는 빛의 정도는 아주 서로 다르다. 빛이 너희 혼에 전적으로 모두 비추일 수 있으면, 빛이 분해 돼야만 하는 불순물을 만나지 못하면, 너희는 넘치게 축복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이미,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 너희 혼이 밝게 되고 빛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의 모든 고난에 복종하고 인내하면, 견뎌야 한다. 너희는 항상 고난이 너희의 혼의 성장을 위해 필요함을 생각해야 한다. 너희는 모든 고난을 벗어 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항상 „아버지여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왜냐면 내가 왜 너희에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지 내가 왜 „나를 따르라.“고 말했는지 알기 때문이다. 너희가 항상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훨씬 더 어렵고 고난이 층만한 길을 간 것을 생각하면, 너희는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또는 허용하는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한다.

왜냐면 너희의 이 땅의 삶 동안 짊어지게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작은 십자가이고 항상 단지 너희의 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라.

B.D. No. 1834

1941년 2월 27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이끄는 길은 단 하나이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이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문을 통해 영원한 행복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인간은 사랑과 고통의 길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은 길과 똑같은 길을 걸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만 자신을 구속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해 죄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얻은 은혜가 그에게 전해져야만 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그는 단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이 모든 충만함으로 구세주 안에서 거할 수 있기 위해, 구세주를 이 땅에 보냈음을 믿어야만 한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 그가 구속 사역을 사람들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의 역사로 깨닫고, 구속 사역의 축복에 동참하기를 원하게 되면,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한 것이다.

예수는 말했다: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는 이 말을 사람으로써 말하지 않았고, 이 말을 영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예수 자신이 순수한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랑 자체인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위해 자신을 사랑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이 사랑 안에 거하면, 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신성의 본질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분리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랑이 단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없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서로 분리시키는 일은 깊은 믿음이 아니다. 그는 영원한 신성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만든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을 규정하고 있다: "너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람 자신이 사랑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신 길과 같은 길을 가야만 한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의 길에서 사랑을 나눠줘야만 한다.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랑의 역사를 통해, 영원한 신성을 자신에게 끌어드린다. 이로써 그는 영원한 신성과 연합한다. 그러면 예수가 말씀한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예수는 마찬가지로 그의 큰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로써 그는 온전한 권리로 이 말을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전적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영원한 신성인 아버지가 자신으로부터 나온 아들 안에 거했고, 영원히 더 이상 서로 분리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원초적 힘과의 연합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진실된 사랑으로 표현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다. 구속역사는 모든 인류를 위한 한 사람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역사였다. 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랑도 없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연관관계를 선명하게 깨닫기를 원하게 되었을 것이고, 예수의 신성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는, 높은 곳을 향한 길은 결코 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예수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지 못하고, 이로써 영원히 멸망을 받기 때문이다.

아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

B.D. No. 6374

1955년 10월 10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너희는 진실로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불러야 한다. 나를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깨닫고 그 안에서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이로써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단지 그의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영이 그에게 그를 한때 생성되게 한 분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육신을 입은 일을 믿지 않는 사람은 비록 그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를 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은 그가 단지 양육을 통해 얻은 믿음이고 그 안에서 생명력이 있게 되지 못한 믿음이다. 왜냐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사랑에서 나오고 사랑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부터 아버지와 하나가 된 세상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신성을 분리시키지 않을 것이고 그의 영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고 그의 기도는 항상 응답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항상 내가 그에게 허락할 수 있는 것을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항상 내 영이 너희 안에서 역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영은 항상 너희 자신이 내 영에게 허용하고 사랑의 삶을 통해 내 영이 나 자신을 너희에게 표현할 기회를 줄 때, 내가 너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마치 너희가 말씀을 직접 들은 것처럼 내 말씀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 말하고 동시에 그들에게 내 말씀과 함께 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자신이 축복을 받았고 말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의 혼이 빛을 받기 때문이다. 너희 혼은 깨달음에 도달하고 성숙해지고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 너희는 내 뜻을 성취시킬 것이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점점 더 사랑으로 형성할 것이고 너희의 혼은 아직 이 땅에서 온전함에 도달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부르라. 무엇보다도 너희가 이 땅에서 온전함에 도달하기를 위해 구하라. 너희의 이런 기도는 진실로 나에게 헛되게 드러진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영적인 요청을 들어주는 일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거부하지 않기 때문이고 사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가 이미 그의 자녀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너희가 내 임재를 의식하고 의식하는 가운데 머물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삶의 길을 영원한 아버지의 끊임없는 동반을 받으며 가고 절대로 잘못 된 길을 갈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너희는 항상 생각으로 영의 영역에 머물고 너희의 성장은 보장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말씀 대로 처신한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구한다면, 너희가 이를 수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겠느냐? 너희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잘못 된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희의 기도를 항상 성취시켜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고 내가 약속을 지키기 때문이다. 예수 안의 아버지를 부르라. 그러면 너희는 또한 구속받은 존재의 무리에 속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신비를 알게 된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었다는 믿음이 전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너희는 이런 믿음을 증명한 것이다.

아멘

계속하여 예수를 부르는 일이 그의 임재를 보장한다.

B.D. No. 7356

1959년 5월 6일

내가 나에게 속하기 원하는 사람을 떠나지 않음이 너희에게 확실해야 한다. 너희에게 아직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이다. 나는 이를 알고 있고 항상 너희 곁에서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모든 시도를 해야 한다. 내 대적자는 너희를 시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그는 아직 짧은 기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추종자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는 그의 권세와 그의 의지로 벗어난, 나에게 속한 사람들도 바라보고 더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유혹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내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나에게서 빼앗아 가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항상 단지 나 자신을 부르면, 내가 너희를 돕는다는 것을 깊이 믿는 가운데 내 이름을 부르면, 너희는 그에게 저항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 자신에게 의뢰해야만 한다. 너희는 그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권세는 더 이상 크지 않다. 왜냐면 나를 향한 사랑 앞에 너희를 대항해 어떤 시도를 하던 시간에 모든 일이 반격당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주 너희를 더욱 괴롭히는 수단을 사용한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항상 단지 십자가에서 너희 모두를 위해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죄짐을 짊어진 나를 생각하면, 너희는 이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나는 너희를 구속했다. 나는 너희를 그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내 십자가의 희생을 영접하려는 너희가 이 희생이 너희를 위해 드러진 것으로 여기고 너희가 자유의지로 너희 자신을 나에게 드리면, 내 대적자에게 더 이상 너희에 대한 아무런 권세가 없음을 믿으려는 너희의 의지 만이 필요하다. 매순간 나를 생각하라.

이로써 너희는 나 자신이 항상 임재하게 한다. 내가 너희에게 임재해 있으면,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너희는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내가 너희 편에 서면, 내가 너희 편에 머물면, 그렇지 않았으면 강력하였을 대적자도 무기력해지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을 유일하게 너희의 생각에서 나를 떠나지 않게 만들려는 모든 위험과 공격 가운데 나를 부르고 내가 언제든지 너희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돕는다는 신뢰 가운데 내 이름을

부르는 너희 의지가 정한다. 항상 계속하여 사랑을 행해 너희 믿음을 단지 생명력이 있게 만들라. 너희는 더 이상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영적 위험과 세상 위험을 물리치기 때문이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두려움과 절망을 알지 못한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가장 큰 원수에 대한 승리자인 나 자신과 연합되어 역사하는 것이고 대적자는 이 역사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 전적으로 모두 헌신해야 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속하고 속해 머물고 영원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사랑이 너희에게 처음부터 향해 있고 내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버지는 원수를 통해 자녀들 공격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자녀를 보호할 것이다. 아버지는 자녀의 곁에서 함께 갈 것이고 보호하는 손을 펼칠 것이다. 자녀가 올바르게 목표에 도달하게 자녀의 모든 길은 평탄할 것이다.

아멘

예수를 향한 헌신. 구세주와 의사. 구원자.

B.D. No. 6508

1956년 3월 22일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난 죄가 너희를 부족하게 만들었고 이로써 너희를 불행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들이 그들의 큰 죄짐을 벗고 그들 스스로가 이전에 육신을 입었던 기간에 그들에게 가능한대로 죄값을 치르고 이로써 그들이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즉 내가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게 하면, 그들이 다시 전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왜냐면 그들이 자유의지로 그 안에서 나 자신이 이 땅으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고 그들이 이제 한때 멀어졌던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 자원하여 나를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러면 그들은 원래 초기와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요구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일이다. 너희가 이런 헌신을 통해 나에게 돌아오려는 너희의 의지를 표현한다. 그러나 너희가 진지하게 십자가 아래로 도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전적인 믿음으로 너희의 구세주요 너희의 구원자요 너희의 형제인 그에게 가느냐? 너희가 전적으로 진지하게 그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얻은 그의 은혜를 활용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영으로 진리로 말하느냐? 아니면 너희가 그를 고백할 때 단지 빈 말을 하느냐?

그는 진실로 너희의 구세주요 의사이고 그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이다. 그는 나 자신을 모신 걸형체이다. 그러므로 그의 권세와 힘은 무한했다. 이런 예수는 볼 수 있는 신성이고 신성으로 머문다. 내가 그를 택했고 이로써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인 내가 너희를 위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를 부르면, 너희는 나를 부른 것이다. 나는 너희의 말을 듣고 성취시켜준다. 왜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어떤 것을 구하면, 아버지가 그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적인 믿음으로 신뢰하고 주저하지 말고 구세주와 구원자에게 너희를 맡기라. 이로써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지킨다는 증거를 줄 수 있게 하라. 너희는 내가 항상 너희가

영으로 진리로 모든 기도를 하게 하고 너희가 모든 몸과 혼의 고통 가운데 나에게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만 한다.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가고 내 말씀을 기억하라. 내 말씀이 너희 심장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왜냐면 내 약속은 진리이고 너희 자신이 내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정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해 너희의 죄를 짊어졌고 너희가 너희의 원죄에 대한 속죄로 견뎌야만 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당했다. 내가 그의 죄를 그를 위해 짊어지도록 사람이 자신의 죄를 나 자신에게 넘겨준다면, 모든 사람의 삶이 염려가 없고 고난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그의 기도와 함께 해야만 한다. 그는 내가 사람이 고통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 믿음이 아주 연약해 그의 기도가 나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그가 아직 내 사랑이나 또는 내 권세를 의심한다면, 내가 내 영원한 질서를 어기면서 그의 고통을 피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나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돕기를 원한다. 너희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다면, 이런 내가 주는 보장을 활용하고 너희 자신을 나에게 맡겨라.

너희가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졌고 내가 너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너희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면, 너희가 비로소 내 구속역사를 생명력이 있게 믿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를 향한 모든 의심이 비로소 사라질 것이고 너희가 비로소 전적인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비로소 너희의 고통을 너희에게서 거두어 드리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왜냐면 그러면 비로소 너희의 나에게 귀환이 완료되고 그러면 너희가 비로소 영으로 진리로 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

B.D. No. 7321

1959년 3월 30일

너희의 모든 짐과 염려를 십자가 아래로 내려 놓으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맡기면, 너희는 너희 짐을 느낄 수 있게 벗을 것이다. 왜냐면 그가 너희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도와주거나 또는 그가 너희에게서 십자가를 벗겨주고 그가 큰 죄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큰 죄짐을 향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이런 모든 큰 도움을 아주 적게 활용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한다. 너희가 스스로 이 짐을 줄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에게 항상 도움을 약속하고 너희 모두를 사랑하고 너희가 고통 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에게 가지 않는다. 그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너희는 항상 그리고 항상 또 다시 그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 너희의 위험물 아뢰고 복종하며 그의 도움을 기다려야 한다. 왜냐면 그가 너희에게 약속해주었고 진실로 약속을 성취시켜주기 때문에 그는 너희를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로 너희의 모든 어려움을 안다. 그러나 그는 너희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이를 통해 자기의 사랑과 권세에 대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기 원한다. 그는 너희가 자기를 신뢰하고 헌

신하는 일을 요구한다. 그 자신이 너희가 그에게 너희의 짐을 넘겨주기 원한다. 그는 너희의 짐을 너희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자신이 지기 원한다.

왜냐면 너희가 그를 하나님과 하나가 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 인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의 과정을 간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면, 그가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짐은 항상 죄의 증거이고 온전하지 못한 것의 증거이고 그러므로 너희를 그의 십자가 아래로 가게 해야 하는 증거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를 통해 너희의 믿음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너희를 짓누르고 공격하는 자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에 의해 강해지면, 또는 그가 너희를 십자가를 지게 도우면, 너희에게 모든 짐이 견딜만 하다.

왜냐면 작은 십자가를 지는 일은 너희 모두에게 주어져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갈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런 작은 십자가를 복종하며 짊어져야 한다. 이로써 너희의 저항하는 능력이 강해질 것이다. 너희는 너희 혼을 원수에 대항하는 강한 전사가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한 강한 전사가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진실로 주님 편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싸움을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짓눌리는 일을 십자가가 너희 어깨에 너무 무겁게 되는 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항상 자신의 강한 팔로 너희를 보호하거나 십자가를 자기 자신이 짊어질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의 사랑이 염려하며 너희가 너희를 넘어지게 하기를 원하는 자의 희생자가 되지 않게 너희를 지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가 해준 다음 말을 생각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희망이 없이 절망할 필요 없다. 너희는 항상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하고 제한이 없이 그를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그는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를 자기에게 끌어들이는 것이다. 육체와 혼은 너희를 항상 행복하게 해주기 원하는 그의 사랑과 긍휼로 강할 것이다.

아멘

이 땅의 삶의 과정을 위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B.D. No. 7497

1960년 1월 10일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버지와 연합되어야 하는 목표에 도달 하길 원하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인간으로써 이 땅의 삶을 시작하면, 그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왜냐면 그가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그의 의지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 결정해야만 한다.

이런 결정을 위해 부정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싸움이 필요하다. 사람은 자신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두 가지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어떤 주인이 이제 자신을 소유할지는 자신의 의지가 결정적임을 알아야만 한다. 한 주인은 이미 어느 정도 그에 대한 권한

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를 자기에게 머물게 강요할 수 없고 그가 다른 주인을 향하길 스스로 원하면, 그 사람을 자유롭게 놔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최종 결정에 도달하기까지 오랜 기간의 싸움이 있다. 왜냐면 첫 번째 주인이 싸우지 않고 혼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의 모든 기간 동안에 혼이 자신에게 달라붙어 있게 싸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도 비록 대적자와 다른 방법이라 할지라도 모든 혼을 얻기 위해 싸운다. 하나님은 사람들 자신이 자신의 의지를 올바르게 향하게 하고 활용하기에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결정할 때 도움을 줘야만 함을 안다.

사람들의 의지를 강하게 해줄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끔찍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를 통해 그는 사람들에게 강한 의지를 얻어 주었다. 그러나 사람 스스로 이런 강한 의지를 활용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해야만 한다. 그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여 그에게 올바르게 원하고 올바르게 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얻어야만 한다.

그는 먼저 자신의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길 원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그 자신이 이미 올바른 주인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모든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을 간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사람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한 깨달음을 얻어야만 한다.

이런 깨달음이 길ियो, 진리요 생명에 관한 기쁜 소식인 복음을 그에게 전하고 먼저 올바른 생각을 도달하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는 선명한 길을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인 복음을 그에게 전한다. 왜냐면 기쁜 소식은 사랑을 가르쳐 주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고 그를 인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능력의 제공을 보장해 주는 그와 연합이 이뤄지게 한다. 그는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에 들어선다. 그는 하나님과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목표를 향해 확실하게 인도받는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에게 향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육신을 입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목표에 도달하길 원하면, 이는 그 자신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유롭게 놔두길 원하지 않는 주인과 싸움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싸움을 위해 능력이 필요하다. 능력은 단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얻을 수 있다. 그가 없이는 사람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능력이 없다. 그는 항상 패배할 것이다.

그의 의지는 아주 연약하게 되어 대적자에게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대적자에게 당할 것이다. 그는 대적자에게 대항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그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에게 강하게 해주기, 능력을 제공해주기 구해야만 한다.

그는 헛되게 부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가 진지하게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사로서 그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는 진실로 승리자가 되고 승리자로 남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승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었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모든 혼들을 위한 구매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의지만이 필요하다. 의지가 강하게 되기 위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해야만 한다. 그는 진실로 의지가 강해지는 일을 체험할 것이다. 사람은 깨달음이 없이 이 땅에 임한다. 그러면 그에게 여러 가지 깨달음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는 내적으로 올바른 것을 위해 결정해야만 한다.

만약에 그 의지가 선하면, 그는 올바르게 원하고 언제든지 올바른 것을 깨닫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높은 권세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깨달음이 주어지고 그의 신적인 사랑의 가르침에 관한 깨달음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신의 삶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가야만 하는 길에 관한 깨달음이 주어지고 원래 초기에 가졌던 관계가 다시 형성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뜻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하고 조성한다.

아멘

세상 앞에서 고백하는 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일.

B.D. No. 4831

1950년 2월 6일

너희가 믿음에 대해 고백하고 나에 대한 입장을 고백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너희는 나를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나의 이름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말라. 왜냐면 심장으로 하는 고백이 나 자신을 너희 편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이 너희로부터 사라지고, 너희는 공개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믿음에 대해 나의 가르침에 대해 너희 주변과 너희 자신 안에서 일어난 나의 역사에 대해 또한 미래에 대한 일을 말하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침묵의 장벽 뒤에 많은 것을 숨길 수 있어, 진리를 감추기에 적당한 침묵의 장벽을 무너지게 한 것이다.

너희는 어디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면 나 자신이 너희에게 나를 고백하고 요구하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죽음 후의 삶을 믿는 너희를 조롱하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이 타락할 것이고, 그들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모든 것은 그들에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는 사람들에 대한 공개적인 적대가 일어날 것이다. 믿는 사람은 지속적인 공격 목표가 되고, 이런 증오로부터 자신을 거의 보호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은 일어나야만 한다. 왜냐면 나에게 속한 사람들과 나를 믿는 모든 믿음을 없애려는, 나의 대적자에게 속한, 나의 대적자의 추종자들 사이에 구별이 되어야 하는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자신이 필요하면, 영으로 또한 볼 수 있게, 너희와 함께 함을 알라. 이런 사람들이 너희보다 숫자적으로 월등할지라도, 그들에 비해 너희가 훨씬 강한 것을 알라. 왜냐면 내가 너희 편에서 싸우면, 너희는 절대로 패배당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공개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나를 위해 나서, 누가 너희에게 능력을 공급해주는지를 원수가 알 수 있게 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가 특별히 도움을 받는 일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공격받으면, 단지 전적인 믿음으로 나의 이름을 말하라. 나의 이름으로 공격에 대항하라. 심장으로, 입으로 나를 부르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약속한 것처럼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속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능력을 공급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구세주의 이름 안에 절대로 능가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종말의 때에 나를 믿는 사람은 나의 모든 사랑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세상 앞에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에게 증명한 것이고, 나는 그를 아주 특별하게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아주 곧 나를 고백하거나 또는 거부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다. 그러면 기뻐하며 세상 앞에서 예수를 고백하라. 왜냐면 단지 예수를 통해 너희가 나에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예수의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과 그의 도움을 통해 나에게,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다. 예수의 큰 사랑을 통해, 죄로부터 세상을 구속한 예수와 그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존재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세상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B.D. No. 7216

1958년 11월 28일

세상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직 내 영으로 충만해 있지 않다. 그는 단지 빈 그릇이고 영이 없고 생명이 없는 죽은 형체이다. 왜냐면 생명은 나를 깨닫고 나를 이웃에게 고백하기 때문이다. 두려워하며 내 이름을 말하기를 피하는 것을 통해 나와 내 구속사역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해 단지 희귀하게 영적인 대화를 허용하고 허용하면, 단지 불쾌한 가운데 허용하는 것을 통해 너희는 그들이 형식적인 신자인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죽은 추종자로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곳에서는 가장 큰 기쁨으로 내 이름을 고백할 것이고 사람들이 내면으로부터 세상 앞에 나를 고백하게 재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제 얼마나 적게 사람들이 기독교적으로 처신을 하는 지에 그들이 종교나 또는 기독교를 즉 교회나 또는 다른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는 일을 피하려고 하는 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나 모든 것이 비밀로 포장되어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나 사람들이 사회에서 하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영의 나라에 관한 또는 사람의 이 땅의 과제에 관한 주제를 피하는 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너희는 언젠가 사람들에게 세상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한 분을 고백하거나 또는 거부하기를 요구하면,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지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단지 소수만이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와 내 나라를 위해 세상 앞에서 나설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심장 안에서 아직 전적으로 버리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올바른 고백이 주는 결과를 자신이 짚기 위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설 것이다. 종말 전의 내 대적자의 역사인 환란을 견디는 사람은 단지 소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지 증거가 될 것이다. 왜냐면 단지 이런 사람이 세상 앞에 큰 소리로 내 이름을 고백하기 때문이다. 단지 이런 사람이 나를 부인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단지 생명력이 있는 믿음 만이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준다.

단지 생명력이 있는 믿음 만이 사람 안에 내 영의 역사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에 내 도움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갖게 한다. 이 때는 누가 나에게 속하였는지 나에게 속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기독교가 지금까지 단지 형식이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들이 구분되는 때이다.

그러면 사람이 이런 또는 저러한 교파를 추종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 자신을 따라야만 한다. 그가 나와 생명력있게 연합이 되어 큰소리로 그의 하나님이요 구세주로서 내 이름을 선포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돼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내 영접을 받을 것이다.

나는 빛의 나라에서 그를 고백할 것이다. 나는 "세상 앞에 나를 고백하는 사람을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고백할 것이다." 라는 내 약속을 성취시킬 것이다. 왜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깨달았고 내 영이 그 안에 모든 충만함으로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아직 내 대적자에게 속해 있고 다시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내 대적자에게 속한 상태로 머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내 이름을 인정하는 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의 날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러면 나는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올 것이다.

생명은 단지 나로부터 오고 나에게 속한 사람은 생명을 얻고 그러나 마지막 결정을 그에게 요구할 때에 그가 나를 부인하면서 나를 떠나는 모든 사람은 죽음에 도달한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라. 이런 사람들의 숫자는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축복으로 인도하는 내 무리는 단지 작을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나라로 가는 문이다.

B.D. No. 5931

1954년 4월 15일

너희가 단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올바른 문지기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면, 하늘나라의 문이 진실로 너희를 위해 열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너희를 그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킬 수 있고 그럴지라도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문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문이 닫혀 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인도에 자신을 맡기기로 정할 때까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향하는 길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든 영의 나라에서 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너희가 위험과 비참함 가운데 살게 되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자 구원주로 인정할 때까지, 너희는 빛의 나라 밖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너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해야만 하고 너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거할 때 보여준 길로 가야만 하고 너희 모두는 그를 따라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길이 곧바로 하늘나라로 이어지고 너희가 한때 생성되게 한 아버지에게 돌아 가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너희가 항상 잘못된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너희가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하고 모든 너희 앞에 빛이 없고 너희가 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너희는 예수를 너희의 인도자로 선택해야만 하고 저항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야만 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통해 하늘 나라의 문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너희 사람들을 위해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해 속죄의 길인 무한한 고난의 길을 갔고 아버지께 가는 길을 가로 막는 모든 장애물을 치웠고 너희가 단지 너희를 앞서 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너희가 이제 자유하고 쉽게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너희의 짐을 덜어주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와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므로 그들의 큰 죄짐을 인정하지 않는 혼들은 평화와 빛의 나라에 들어 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항상 또 다시 쓰러지고 혼자서 일어설 수 없게 되고 위로 향하는 길을 보지 못하고 항상 아래로 향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영원을 향한 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육신의 죽음 후에 영의 나라에 들어가는 혼들에게 자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거나 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혼들의 의지에 따라 혼을 분리하고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예수 안에서 그들의 영원한 아버지를 보고 영원에 영원까지 아버지에게 속하게 된 사람에게 또한 복이 있다. 예수는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로 인도하고 그의 나라는 그들에

게 셀 수 없는 축복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문은 대적자들에게 닫힌 채로 머물러 있고 그들이 그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고 세상을 죽음과 죄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까지 그들은 끝없이 오랫동안 밖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아멘

저세상과의 간격을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

B.D. No. 7290

1959년 2월 22일

이 땅의 삶에서 나를 멀리했던 사람과 이미 나를 찾고 빛의 의복을 입고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던 사람들 사이에 아주 큰 간격이 영의 나라에 있다. 빛의 의복을 입고 영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광경을 실제 볼 수 있고 그들의 처량한 상태를 측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에서 나를 멀리했던 사람은 자신이나 또는 같은 생각을 가진 영의 존재들 외에는 볼 수 없고 그들과 다투고 싸우면서 자신의 형편에 해를 가하고 어떤 축복도 느낄 수 없다.

이런 혼들은 절대로 먼저 떠난 사람들이 이미 높은 성장 정도에 도달한 후에 이 땅을 떠났다면, 그들을 볼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들이 어느 정도의 성장에 도달해야지만 축복된 재회를 할 수 있다. 비록 육체의 죽음 후에 모든 혼들이 들어가는 영의 나라일지라도 이런 혼들이 거하는 두가지의 세계가 있다. 이런 두개의 세계는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간적으로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각각의 나라의 상태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이는 큰 간격이다. 그러나 이 간격은 극복되어야만 한다.

빛의 나라에서 항상 또 다시 알지 못하게 빛의 존재들이 임해 혼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행해야만 한다. 이 일은 혼들이 자신의 환경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게 만드는 일이고 자유의 의지로 빛의 존재를 따르게 하는 일이고 빛의 존재는 그들을 항상 자신 가까이로 인도하려고 시도한다. 다시 말해 빛의 존재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해줘야만 하고 혼들이 스스로 원하면, 이런 모든 혼들을 위해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속사역에 대한 소식을 전해줘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그들과 나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게 되고 어두움의 나라와 빛의 나라의 간격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비로소 혼이 깊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을 향하는 길에 들어서고 비로소 구속사역을 은혜가 그들에게 역사하고 그들을 서서히 이제 스스로 다시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하기 원하는 성장 정도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감사한 빛을 청산하기 원하고 이런 감사의 빛이 그들 자신을 깊은 곳에서 아직 불행한 존재들을 돕는 일을 하게 자극하기 때문이다. 간격은 극복되어 야만 하고 단지 유일한 다리가 있다. 이 다리는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길을 택한 사람은 비록 그가 이 땅에서 나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거나 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제 나에게 인도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는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움의 영역에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는 다리이다. 이 땅에서 이미 나와 연결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찾지 못하고 단지 이름만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

는 진실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와 긴밀한 연결이 없고 그러므로 구속사역의 은혜를 스스로 아직 요구하지 않고 이로써 그들의 원죄로부터 구속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너희 모든 사람은 이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저세상에 도달하면, 마찬가지로 깊은 절벽 앞에 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구세주를 구하고 찾아야만 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구세주가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너희의 고백이 심장은 참여하지 않고 단지 입으로만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술이 아주 크게 자주 내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심장 안을 보고 나는 입술을 통해 속지 않는다. 나는 혼이 실제 속하지 않은 곳으로 혼을 배치할 수 없다. 혼이 저세상 나라에 도달하면, 자신 앞에 큰 간격을 볼 것이다. 또는 혼이 세상을 향한 감각이 그를 속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혼이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혼이 돕는 자의 소개에 저항하지 않아 너희가 곧 하나님의 구세주를 혼의 형편으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로 올바르게 소개할 수 있으면, 혼에게 단지 유익이 될 것이다.

다리는 놓여야만 한다.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가야만 한다. 만약에 혼이 단지 먼저 큰 간격을 극복했으면, 혼의 의지가 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고 혼이 이제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갈망하고 찾으면,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하게 빛의 나라의 문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그러면 혼은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을 택한 것이고 나는 빛과 축복의 나라인 내 나라에서 그를 영접할 것이다.

아멘

저세상에 있는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일.

B.D. No. 7839

1961년 3월 2일

저 세상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모든 영원 동안 구원을 받는다. 아직 어두움 가운데 거하거나 또는 여명 가운데 거하는 혼이 내 이름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으면, 가장을 한 빛의 일꾼을 통해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통해 그들에게 나와 내 구속사역을 전하면, 어두움은 그로부터 사라진다.

이미 내 이름의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할 것이고 그들은 나를 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나를 찾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혼들의 의지는 자유하고 자유롭게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를 영접하기까지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역사하기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게 함께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빛의 존재가 성공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흘러 갈 수 있다.

그러나 이 혼을 얻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구속사역을 거론하는 곳에서 혼들이 항상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혼들이 자유의지로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고 나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게 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혼이 함께하게 부르는 일은 큰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축복되지 못한 동안 그들은 그들의 죄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불행이 그들로 하여금 그의 형편을 나아지게 자기 자신에 대해 그들의 이 땅의 삶에 대해 그들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인 나와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람들 편에서 드리는 사랑의 중보 기도를 받으면, 그들을 사랑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도우려는 의지를 느끼면, 저항은 이미 줄어든다. 그러면 저세상에서 항상 또 다시 혼들에게 제공이 되는 도움에 대한 저항도 줄어든다. 저항을 포기하는 일은 이미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왜냐면 이런 혼들이 받는 모든 감동은 결과를 나타내 혼을 행복하게 하고 빛에 대한 갈망을 크게하는 작은 빛을 혼에게 선물하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나를 찾지 못한 저세상에 있는 혼들은 나를 찾아야만 한다. 만약에 너희 사람들이 위험 가운데 있는 혼들을 자주 생각하면, 너희의 생각 안으로 들어오는 혼들에게 항상 단지 유일하게 그들을 축복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알려주면, 너희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혼들에 대한 너희의 사랑하는 생각은 빛의 불씨와 같고 그들 안에 기쁨을 주는 그들이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빛의 근원을 향해 추구하게 한다. 세상에서는 모든 영적인 가르침을 멀리 하면서 단지 이 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후에 어떠한 영적인 재물도 없이 저세상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이제 영적인 재물을 자유의지로 얻어야만 한다.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은 어떠한 저항도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 복음을 사랑으로 그들과 같은 형편에 있는 자신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한다. 너희 사람들이 이런 혼들을 영접하면, 혼들은 버림을 받지 않는다.

너희의 생각이 그들을 항상 너희에게 이끌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거절했던 것을 너희들로부터 영접할 것이고 행복하게 느낄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사랑이 그들에게 향해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랑은 효과가 없이 머물지 않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어둠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예수 안의 나를 찾지 못한 혼들을 자주 생각하라.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라. 너희는 특별히 종말의 때에 큰 의미가 있는 축복된 구속하는 일을 행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아직 많은 혼들이 깊은 곳으로부터 구속을 받아 종말이 오면, 그들이 새로운 파문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한다.

B.D. No. 5952

1954년 5월 9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한다. 이 말만으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중요성을 잊었다. 왜냐면 인류가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생각이 없이 자신을 아버지께 향하는 다리로 묘사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의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단지 영과 생명이 없는 문자이고 사람들은 말씀의 의미를 의식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말하고 주님의 말씀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로써 아버지께 향하는 길을 찾지 못한다.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결과로 나타나는 확신을 가진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아버지께 향해 다가갈 의지가 없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버지께 향하는 길을 찾지 않고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자세가 멸망으로 영적인 죽음으로 이끈다. 그들은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의 권세 아래 머물고 그들이 높은 곳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곳에 머물게 된다.

사람들이 위를 향해 전혀 추구하지 않고 그들의 이 땅의 과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복음에 무관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설명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에 전혀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일은 아주 불쌍하게 여길만한 상태이다. 아무도 그가 아버지께 귀환하기 위해 이 땅에 머문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에게 끊임없이 귀환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가 믿지 않기 때문에 굳어진 생각으로 거부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과 아버지 사이의 간격이 크지만 한 분이 인도하고 전해주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제공했고 아버지께 향하는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다리를 건설했고 이런 분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도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런 분이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게 만들기를 원하면,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눈이 멀고 귀가 먼 가운데 이 분을 지나친다. 비록 이런 분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한다." 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자신에 대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진리와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길을 가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 준 것을 활용해야만 하고 삶의 목적인 아버지와 연합하는 일에 성공하는 이 땅의 과정을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을 구해야 한다. 아버지와 연합이 비로소 축복되고 영원히 지속되는 삶을 보장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무관심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 어떤 운명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유일하게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을 도피처로 삼지 않음으로 무엇을 얻지 못하게 되는 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무엇을 얻지 못하는 지를 알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비록 말씀이 위로부터 전해질지라도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자원하여 귀를 여는 다른 목소리인 세상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구한다. 그들은 그들에게 생명을 약속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러므로 죄와 죽음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 없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